

제8호

2000.

驪州文化



여주문화원

여

백

2000.

제 8 호

驪州文化

驪州文化院

여

백

문예중흥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 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 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年 10月 20日

여주의 노래

유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봉 마 다 푸 른 솔 에 싱 싱 히 어 ~ 린



북 별 의 칼 을 갈 던 우 람 한 뜻 ~ 과



정 읊 을 지 어 퍼 신 어 - 진 슬 기 가



봄 하 늘 태 양 으 로 우 - 털 기 른 다



굽 이 쳐 흘 러 가 는 무 궁 한 강 - 물



강 물 처 럼 무 궁 한 여 주 의 마 ... 음

2. 명화에 그림같은 여주 팔경에
포은도 찾아와서 시를 읊었네
역사에 피고진 허다한 인걸
유서깊은 고적마다 신운이돈다

3. 맑은강 넓은들에 검은 멧부리
흥겨운 농부가는 메아리 친다
천마대 살아나갈 우리 복지를
자유의 깃발아래 이룩해 가자

여주문화원 연혁

◆ 설립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초기로 복지관, 국민문화원, 공보원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지들의 지원과 원장의 사재로 운영되어 왔으며 1962년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설립되던 해에 76개소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증가추세에 있었음.

◆ 설립계기

1967년초에 [여음회]란 모임에서 설립 논의가 있었고 동년 12년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 |
|-------------|--|
| 1967. 5. | 여주읍 흥문리 15 여광기술학원내에 비법인 세종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함.(박운한 학원장 무상임대) 추진위원:안금식, 이일섭, 최진식, 오대근 |
| 1968. 1. |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 |
| 1969. 2. 25 | 발기인 총회(발기인:김윤선, 박운한, 정춘식, 안금식) |
| 1969. 4. 11 | 창립총회, 정관제정 |
| 1969. 5. 14 | 이사회회 개최(원장:안금식, 이사장:김윤선) |
| 1970. 2. 26 |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문화공보부장관) |
| 1970. 4. 27 | 법인설립등기 |
| 1974. 6. 14 | 2대원장 김효정 선출 |
| 1981. 6. 23 | 3대원장 김덕배 선출 |
| 1981. 6. 23 | 정관개정 |
| 1981. 6. 23 | 사무실이전(중앙감리교회 별관) |
| 1982. 2. 26 | 4대원장 안금식 선출 |
| 1982. 10. 9 | 경기도주최 세종문화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최행사로 인수(강변봉화, 해춘낙화, 불꽃띄우기, 민속가두행렬등) |
| 1982. 12. | 황여문화 창간 제9호까지 발간(90. 12) |
| 1984. 1. | 가남분두리 낙화놀이 발굴(정월 대보름 낙화놀이 체계적 시연 유도 매년 음력 1. 16시연) |

1984. 5. 15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주관
(시조백일장, 국악인초청공연등)
1985. 11. 원부리 얼 답고놀이 시연지도(매년 정월대보름 시연)
1986. 1. 31 사무실 이전(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86. 2. 7 정관개정(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6. 5. 15 세종벽담 문화상 제정
1986. 7.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시연
1986. 12. 20 **여강문화** 창간호 발간(72페이지)
계속 6호까지 발간(90. 12. 20)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대통령상 수상
1988. 2. 29 여주문화예술코너 개관(여주읍 하리 15블럭 9롯트)
1991. 8. 17 원장 직무대리 황웅구 선출
1991. 12. 30 사례집략 발간
1992. 4. 6 원장 직무대리 박근출 선출
1992. 5. 6 시범문화원 지정(문화부장관)
1992. 11. 28 원장 원중재 선출
1992. 11. 28 정관개정(이사장 규정 삭제)
1992. 12. 22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1993. 3. 5 여주문화사랑방 개설
(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93. 4. 9 문화원 처무규정 제정
(직제, 복무, 인사, 보수, 여비,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1993. 12. 30 **황여춘추(제1호)창간**
1994. 7. 29 지방문화원진흥법(94. 1. 7법률 4.718호)공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관 변경
1994. 12. 31 황여춘추(제2호) 발간
1994. 12. 31 여흥문화재대관 발간
1995. 9. 27 원장 조무호 선출
(95. 10. 5 승인 95. 10. 23 등기)

| | |
|--------------|---|
| 1995. 11. 28 | 정관개정(대의원제 신설) |
| | 96. 2.29 문체부장관 허가 |
| 1996. 1. 12 | 사무실 이전 (북내면 천송2리 545-1 청소년수련실) |
| 1996. 2. 16 |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개정 (사용료 변경) |
| 1996. 2. 28 |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8호), 회비규정 제정(규정 제9호) |
| 1996. 5. 15 | 세종대왕 탄신 제599돌 승모제전을 제7회 도자기축제와 병합 추진하여 문화행사를 크게 확대 26개 문화행사 거행 (전시회 4건, 민속놀이 5건, 가무극 8건등 기타 9건) |
| 1996. 10. 9 |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
| 1996. 12. 31 | <u>여주문화(3호) 발간</u> |
| 1996. 12. 31 | 지명유래집 발간 |
| 1997. 5. 15 | 세종대왕탄신 제600돌 기념행사 |
| 1997. 10. 9 | 제29회 세종문화큰잔치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 |
| 1997. 12. 31 | 여주문화(4호) 발간 |
| 1998. 10. 9 | 제30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제2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 대회 |
| 1998. 10. 9 | '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발간 |
| 1998. 12. 24 | 세종대왕 달력 발행 |
| 1998. 12. 31 | 금사면지 발간 |
| 1998. 12. 31 | 여주문화(5호) 발간 |
| 1999. 3. 18 | 원장 한만규 선출 |
| 1999. 5. 14 | 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
| 1999. 6. 8 | 문화원사무실 군민회관으로 이전 |
| 1999. 10. 9 | 제31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 백일장 |
| 1999. 12. 31 | 여주문화(6호) 발간 |
| 2000. 4. 18 |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10억원) |
| 2000. 5. 25 | 여주문화 편집위원회 구성 |
| 2000. 6. 21 | 문화원창립 기념일 제정 (4월27일 법인설립등기일) |
| 2000. 6. 30 | 여주문화(7호) 발간 |
| 2000. 6. 30 | 조선왕조실록에서 모은 여주사료집(1) 발간 |
| 2000. 7. 12 | <u>명성황후 탄신일을 천문역학기관에 조회하여 음력 9월25일 탄신일을 양력 11월17일로 환산 확정함.</u> |
| 2000. 11. 17 | 명성황후 탄신 제149주년 승모제전 |
| 2000. 12. 30 |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 |
| 2000. 12. 30 | 여주문화 (8호) 발간 |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5월 2일 문화유적답사 (백제문화권)



8월 25일 ~ 28일 북한그림전시회



10월 9일 제32회 세종문화큰잔치 백일장 대회



10월 9일 ~ 11일 한국문인협회 시화전



10월 18일 ~ 22일 한국미술협회 여주지부전



11월 7일 문화유적답사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부석사)

차 례

- 문예중흥선언 3
- 여주의 노래 4
- 여주문화원 연혁 5
- 문화원행사 이모저모 8
- 발간사 /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14
- 축간사 / 여주군수 박용국 16
- 축간사 / 여주군 의회의장 신승균 18

논 壇

- 수춘 이민응의 생애와 행적 / 벽봉 이종립 22
- 민족중심 문화의 정립은 곧 민족혼의 정립 / 여광복지회장 박운한 41
- 이병태의 청렴 /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52

향토조명

- 대로사 / 56

유적지 탐방

- 서희장군 묘 74
- 파사성지 75
- 명성황후 생가 76

교황을 빛낸 인물

- 홍병기 78
- 조성환 78
- 최영무 79
- 이원기 80

내고장 전설

- 강금산의 전설 82
- 까막산의 전설 84

전통 민속놀이

- 장채놀이 88

창토문예

【시】

- 추석 / 강태희 92
- 백야 / 김정인 93
- 아지랑이 바람 / 박광태 94
- 고백 / 박찬수 95
- 태백산을 오르며 / 이만준 96
- 별꽃사랑 / 이신재 97
- 나무한그루 / 이일섭 98
- 석별 / 임춘봉 99
- 가을연가 / 원용문 100
- 산나물 / 정기명 101
- 그날이 어제 같았는데 / 조현 102
- 캘리포니아에서 / 홍은숙 103
- 사랑하며 살아도 / 이장호 104
- 산사 / 봄 / 원종천 105

【수필】

- 생명연습 / 이상국 106

【창작동화】

- 배추김치의 꿈 / 강태희 107

제32회 세종문화 큰잔치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 수상자

○ 수상자 명단 112

백일장 입상작품

【시】

○ *대상* 그림놀이 / 광명시 광명북고 2-11(김보경) 122
○ *금상* 여주가는길 / 의정부시 의정부 중앙초등 3-3(박별) 123
○ *금상* 등대 / 여주군 여주중 2-3(최가람) 124
○ *금상* 꽃망을 / 여주군 여주고 1년(박기선) 125

【산문】

○ *대상* 유난히 빛난별 한글 / 여주군 여흥초등 6-3(김성경) 126
○ *금상* 오염된 우리글 / 여주군 여주초등 5-1(심송희) 127
○ *금상* 맥주와 막걸리 / 여주군 여주동중 3년(이승광) 128
○ *금상* 아름다운 불꽃 키워보지 않으려나 / 여주군 점동중고 1년(이소정) 130

發 刊 辭



여주문화원장 韓 萬 圭

「驪州文化」誌가 더욱

地域住民 文化慾求에 寄與하길

새 千年 첫해를 보내면서 우리 驪州 文化院이 한해 동안 住民 文化慾求에 얼마나 寄與 하였는가를 돌이켜 보니 먼저 부끄럽고 罪悚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흔히들 앞으로 펼쳐지는 21世紀는 文化를 保全發展 繼承시킨 民族이 世界를 이끌어가고 主導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鄉土文化는 우리 地域의 자랑스런 삶의 結晶體 이고 持續的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할 귀중한 우리의 精神的 遺産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物質文明의 發達에 때로는 汚染되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情神을 끈고 바르게 지탱시켜 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은 勿論 나아가 世界속의 우뚝선 文化로 價値性을 지니고 있게 되기도 합니다.

鄉土文化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保存하고 다듬어서 獨創性和 唯一性이 있어야만이 堂堂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文化國民 혹은 文化住民이라는 矜持

를 가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祖上의 얼과 숨결이 담긴 文化 遺産이 地域 나아가 民族의 永遠한 資產이자 자랑이라 생각하며 地域文化 暢達의 慾求를 充足시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驪州文化」誌와 함께 地域 여러분 모두의 參與와 관심속에서 持續的으로 發展되어 나아가 하겠기에 끊임없는 여러분의 關心과 愛情을 거듭 當付 드리면서 今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01년 辛巳年 새해에 더욱 健康하시고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가득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祝 刊 辭



여주군수 박 용 국

밝아오는 미래사회의 지식정보에 발맞추어 우리 여주군 문화빈전의 길잡이가 될 “驪州文化 제8호” 發刊을 10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낼 것이며 그것은 곧 기술과 정보화의 사회, 개방과 세계화의 사회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7,80년대 추구했던 경제개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개발은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 시켜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국민 정신의 황폐화, 황금만능주의, 도덕성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세계를 주도하고 문화로부터 얻게 되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적용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여주문화원에서 금회 발간하는 驪州文化 제8호는 여주의 맥박이 살아 숨쉬는 훌륭한 문화작품의 창작활동으로 군민들의 정신적 풍요와 문화의식을 살찌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이 발간되기까지 척박한 여건속에서 노심초사 애쓰신 한만규 여주문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주문화”를 통하여 여주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여주군의회 의장 신 승 균

여주문화 8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지방마다 문화행사가 넘쳐나건만 어느 곳에서도 문화는 찾기 어렵고 먹자판 저질문화를 벌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화는 고도의 정신작용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화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국적없는 저질문화에 안주할 것입니다.

몇 년전의 '여주문화'지만 해도 한문체와 고어체로 읽기가 힘들었는데 최신호는 간편하고 읽기 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첫 발자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귀중한 작업입니다. 이는 한만규 문화원장님과 향토 사료관의 구본만 연구관, 문화원 조성문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월탄 박종화의 '임진왜란'에서 원호 장군의 활약상을 읽을 수 있으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주 팔경의 형상화 작업등

또한 문화는 옛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문화 창조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방,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대왕의 공적 중 가장 으뜸이 한글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아름답게 갈고 닦는 것이 현세를 사는 우리들의 지상 목표일 것입니다.

알포스 도오테의 마지막 수업을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 조선어 말상 정책의 뼈저린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부지불식간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소식, 석식, 음용수가 아침밥, 저녁밥, 먹는물 보다 유식해 보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선 야간 자율학습은 야자로, 모범생은 범생으로, 따돌림은 따로, 시험은 셜으로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수도 없고 우격다짐으로 몰아 낼 수도 없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은 인격과 사고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름답고 명료한 우리말을 갈고 닦는 일을 우리 군에 시작해야 할 것이며 조용히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몽테뉴는 그의 조국 프랑스어를 간결한 문체로 다듬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승화 시켰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씀이 새롭습니다.

여주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정진을 바랍니다.

여

백

본 단



壽春 李敏應의 生涯와 行蹟



〈약력〉

碧峰李鍾立

- 경북 선산 출생(벽진인)
- 연대 대학원 수료
- 언론사 기자 13년
- 화신인쇄공사 상무이사
- 사단법인 해외민족문제연구소 회원
- 을미의병 및 화서학과 명예회복
대책위원회 회장

目 次

- ① 先生の 家系(一家의 抗日運動)
- ② 驪州로 移居
- ③ 篤志家の 愛民情神(貧民救濟事業)
- ④ 財産增殖
- ⑤ 滿洲로 가다
- ⑥ 全成期와 沒落

壽春의 生涯와 行蹟

1 李敏應의 家系

先生은 姓名이 全州人 李敏應(1876-1955) 字는 敬行이고 號는 壽春이다. 出生地는 (春城郡 南面 壽洞) 朝鮮朝 高宗 丙子年 2月 28日生이다.

祖父 原初(1809-1882)는 配平海黃씨 사이에 道相(1838-1904) 외아들을 두었으며 벼슬은 奎章閣副題學을 지냈다.

道相의 字는 元弼이고 配南陽洪씨와 婚姻으로 普應과 敏應 두형제를 두었다. 벼슬은 憲宗대 敦寧僉知 贈嘉善大夫 奎章閣副提學을 지냈다고 全州李氏慶昌君派譜에 적고 있다. 長子 普應(1862-1895)은 配星州李氏와의 無后이다. 次子 敏應은 配坡平尹貞植과 婚姻으로 아들 載重, 載正, 載聖 三兄弟를 두고 벼슬은 前學部參書를 지냈다. (譜 : 通政中樞院副贊議) 壽春의 生父 參奉 道相은 次男 敏應을 從伯씨앞으로 養子入籍 하였다. 養父 道根은 일찍이 33세로 사망했다. 敏應은 養家에서 載重(1907-1940)을 配安東金氏 婚事를 가졌으며 長孫 南鎔(1928-1992) 한분을 두고 曾孫은 海宗(55) 海春(44) 海道(41) 셋손을 이어오고 있다. 壽春의 先祖가 대부분 서울에서 경기도 廣州(하남)에 世居하게 되고 一派는 春川 南面江村~壽洞~方谷 등에 移居하였다. 敏應은 壽洞에서 살았다. 先祖들은 살아온 자취가 그의 경기광주에 묘역이 운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春川南面으로 다시 集去하고 다음으로는 후대가 利川-驪州-龍仁-安城-始興으로 散在移居한 후 자손들이 살고 있다. 壽春 敏應은 宣祖 大王의 9子 慶昌君의 珊(1596~1644) 6兄弟중 長派 昌原君의 儁의 7世孫이다. 그는 朝鮮朝의 宗班血族으로 성장과정은 京鄕生活권을 두고 一派들이 운집하여 山水따라 世居地가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한편 1870년대에 廣州에서 春川으로 옮겨지고 乙未年 抗日運動으로 春川義兵活動은 歷史에 알려진 일이다. 壽春의 家系에 再從(6寸)인 春川義兵長 習齊 李昭應과 普應, 晚應, 景應 兄弟들은 乙未義兵 집안으로 널리 알려지며 高宗32(1895~1897) 抗日鬪爭에 선봉장이었다. 江原一元과 春川戰鬪에서 목숨을 바친 愛國義士들로 文武를 겸비한 人物家의 진면목이라 하겠다. 壽春 敏應의 祖上은 移居한 경로는 서울에서

1800년에 廣州(河南)로 1880년 후기에(憲宗) 春川 南面으로 정착하고 一派는 다시 驪州, 利川에 世居地를 이루며 옮기는 곳마다 地域社會의 공적을 많이 남긴 貴戚으로 알려진 분이다.

특히 地理的으로 北漢江과 南韓江流를 따라 옮겨 살아온 원인도 山川의 좋은 곳을 찾아 자리잡고 風水地理說에 春川은 「春南三拾里 月壇壇秘訣」이라는 名說로 移動하며 살아온 것을 살펴보면 祖上墓所까지 移葬하여 지금까지 살게된 동기라고 밝혀진다. 李敏應의 家系圖는 全州李氏 慶昌君派 → 昌原君 → 惟秉 → 一初 → 道根 → 敏應 → 載重(載正, 載聖) → 南鎔 → 海宗(55), 海春(44), 海道(41)로 이어온다. 壽春의 성장은 이러하다. 나이 4세부터 조부와 부친의 교육을 받고 13세에 1889년 12월~1894년까지 塾師 毅菴 柳麟錫先生을 모시고 5년간 經書를 닦았으며 1890년 9월에 從叔 直軒 普應과 習齊 昭應의 門中어른으로 하여금 道義로서 萬人에게 教化하고 점점 식견을 열어줌이 있으리라고, 예언함과 字說을 毅菴이 지었다고 적고 있다. 그가 많은 가르침도 받으면서 毅菴에게 冠禮를 도움받게 된다. 毅菴集 251 編 字說에 詳細하게 적고 있다. 冠禮때 毅菴은 字를(省齊 柳重教가 지음) 「敬行」이란 字說에 의하면 敏應은 타고난 性稟이 민첩하고 행동을 앞세우며 공경심이 짙고 용모가 빼어나고 현명하며 先天的 資質과 性稟이 外柔內剛形으로 단정하고 어질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가히 크게 될 것임을 기약하였다고 記錄에 나타나 있다. 家門에서 전한 것은 평소 책 읽는데 잠과 싸우는 비법을 뜨거운 방에는 잠이 온다하여 冷房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신장은 6척이상이며 우람한 체격에 엄숙한 貴骨人稟은 주위의 부러움까지 있었다. 일상생활은 사치를 모르고 검소한 美男형으로 “턱”수염은 남다르게 배까지 길었다한다.

② 驪州로 移居

壽春先生은 春川 南面 壽洞에서 風水地理說에 예민하여 삶의 자리를 거듭 옮겨지게 된다. 朝鮮朝의 宗班의 血孫인 富豪家의 子孫으로 일찍이 祖父의 가르침을 받아 經書를 익히고 학문의 길을 닦아 高宗甲午年(1894) 18세에 科擧入格한 후 (敏應의 孫子 瑞鎔(64)씨가 전함) 宮內府 議政府에 잠시 머물고는 父 道根을 따라 지방으로 春川壽洞서 驪州 興川面 外絲里 移住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된다. 첫째 風水地理

說은 地官들의 發祥으로 因하여 壽春의 名家에서는 옛날이나 요즘이나 다를바없이 地官들의 風水說은 예민한면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은 산 좋고 물 좋은 곳 찾아나선 예가 허다한 일이다. 敏應은 20대의 나이에 地官들의 明堂勝地가 있다하여 찾아 나선 것이 현 驪州 金盤形이다. 그는 춘천 수동리에서 연간 3000석을 가진 부농으로 알려진다. (孫女 : 玉妊(65) : 再從孫 海鍾(79)씨의 딸) 이 財産을 탐낸 地官들은 敏應을 그냥 돌리가 없었다. 현재 생존한 柳濬相(79. 상계동 거주 毅菴 柳麟錫의 孫子)씨. 의하면 海東부친과 제종형 益相간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敏應은 平素 만석군의 자손이지만 근검절약한 생활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알려졌으며 기질은 엄숙하고 우람한 풍채를 가진분으로 地官들의 이야기에는 敏應이 답지않게 풍수설에는 솔곧하게 듣는 취향을 남다르게 흥미를 즐기는 기화로 지관들의 권유에 명승지를 찾아 나선 것이 여주로 이주동기가 되었다한다.

1894년께 지관들은 여주 흥천 외사리 圓寂山줄기 옥녀봉밑에 天下明堂 金盤形 같은 자리를 찾게 되면서 뜻을 이루게 된다. 그동안 재산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관들은 좋다는 山川을 누벼들고 몇 년을 뜸을드려 꾸며놓은 터에 標石(誌石)을 『李氏의 中興之地』라고 새겨진 것을 묻어놓은후 敏應을 動하게 하여 현장을 찾아 좋다는 지형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는 표적된 秘訣자리라 해서 그들이 묻어놓은 標石을 찾아내어 敏應으로 하여금 감탄을 가지게 한 일화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정도에 전설도 아닌 것이 敏應이 답지않게 어리석은 면이 있다하여 확인된 일화이다. 이것은 地官들이 오직 財産탐욕에 직업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동기가 驪州 金盤形의 번지 356-13이 그자리다. 여기 金盤形이란 유래는 아담한 玉女峯밑이 金으로 만든 밥상(小盤)형이라 해서 일컫는 뜻이다. 또한 利川郡의 1955년 發刊한 『利川大觀』이란 資料에는 圓寂山아래 金盤形地가(共方向은 甲座亥座) 있는데 이곳을 찾아서 移住하게 되면은 「代代子孫, 富貴榮華, 三六代將相之地요, 三六姓可居地之」라 하여 朝鮮時부터 이 金盤形을 찾고자 慶尙, 忠淸, 全羅, 서울등지에서 本地方으로 무수히 이주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원적산아래 村落에 보기도물게 一百石 이상의 부자가 10餘家口가 늘어났다 한다. 이에 따라 金盤形 찾는 秘訣에 漢詩의 詩云은 「圓寂簇立, 風邊察去來, 鸚鵡森羅, 澤裡觀向背」라 하여 즉 위치를 찾는 글구절이다. 지금도 話題를 낳는다고 적고 있으며 이 地形만은 많은 天德을 누리는 곳으로 뒷받침한다. 이렇게 名地따라 移住하고 住宅을 대지 3,800평 건축 三字形에 나란히 셋채를 짓고 榮華를 누리게 된다.

③ 篤志家の 愛民精神

壽春先生은 財團法人 善隣會를 創設한다. 法人構成은 財團法人 任員陣은 理事長 : 李敏應, 理事 : 任世淳, 李允鎔, 監事 : 池圭澤, 事務長 : 崔善鎔 등만 알려지고 있다. 그 외는 資料損失로 알수가 없다. ㉗ 殖産會社(金融) ㉘ 春岡義粧事業 ㉙ 育英事業 ㉚ 鐵道事業 ㉛ 文化財保存업적 ㉜ 獨立軍과 軍資金? 등 課業을 펼친다.

壽春先生은 篤志家로서 1920年 3月 利川 栢沙面 玄方里(현 : 우체국자리 / 여주 흥천 의사리접근 지역)에 재단법인 善隣會 회사를 設立 발족하고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범위는 광주, 이천, 여주에 세곳 영업사업소를 두고 농업을 위주로 증산에 주력한다. 임야 전답 대지등 확장과 증산에 관하여 영농수익을 비축전담하여 三個地域 三阡섬을 느려가며 企業的 運營을 한다. ㉗ 殖産會社는 金錢貸出은 낮은 低利로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조합구실로 지역의 상인들에게 은행창구 역할로 공적을 남긴업적이 전해지며 이 殖産株式會社가 현 산업, 조흥은행의 母體였다고 孫女 後男(79), 興順(74), 曾孫女 玉姪(65 : 前서울대학교 학생과장)씨가 전한다. 한편 殖産會社는 농지확장과 增産관리하고 營農收益을 備蓄전담하며 廣州, 利川, 驪州에 企業的 獎勵事業이었다. ㉘ 春岡義粧事業을 貧民救濟事業과 孝子 孝婦의 營農技術事業을 전개했다. 여기서 春岡이란 壽春의 生父 道相의 號이다. 父의 뜻에 따라 이룬 同族愛의 義田을 두고 扶養 및 教育, 祖上에 대하여 祭施設과 土地를 기부하고 義粧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善隣會社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대단하다. 영농에는 전답을 장려하고 빈민층에 삶을 누려주고 春窮期에는 갖가지 곡식(穀物)을 가구당 10斗씩에 利子로 년후에 논 두말을 받아서 1斗는 회사의 원자산손실을 메워가고 회사운 영비로 사용을 하며 1斗는 일년후 獎勵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현지 주민 이천 玄方里 尹弼泳(84)翁은 지금도 기억을 생생하게 전한 것을 보면은 그때의 춘궁기에 李參書宅에 무수히 빈민객이 드나들어 끼니를 굶고 있어야 하니 하고 인사를 올리면 누구나 쌀 두말씩은 아무런 조건없이 구제받았다고 힘주어 말한다. (1931년 辛未 4月 資料調查參照 ① ②)

또한 春岡의 事績記에는 요약하면은 1936~7年(丙子~丁丑) 關東大饑에 飢餓同胞 40호 人口各 200餘名을 一個月間 先生의 自宅에서 說粥救窮共後 1945(乙酉) 歲己荐 飢越明年 丙子(1946) 春에 自 3月 20日 ~ 4月 20日 同里 四拾餘戶 略 二百餘名을 일

개월간 說粥救濟로 인하여 고을 사람들의 稱頌이 있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壽春先生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노력을 玄方里 尹弼永翁이 10~14세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李參書 그분이 아니었다고 많은 백성들이 비참했을 것을 구제사업의 덕택으로 살아났다는 실상을 소상히 설명한다. 가난한 농가에는 농토를 주고 저리로 베풀며 덜어주고 더욱 어려우면 일년을 더 연장해주며 면제까지 베풀었다한다.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면 농토를 나누워 짓게하고 몇 년씩 연기혜택으로 따뜻한 이웃정을 나누었다한다. 다음은 가난한 효자에게는 가축 소, 돼지를 장려시켜서 種子育成을 하도록 하고 종자번식으로 각 가정마다 농우를 가지게 했으며 가난한 孝婦에게는 養蠶을 치게 장려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고 양잠영농 육성까지 장려시켜 극진한 배려까지 했었다. 여기에 한 孝婦의 逸話가 남겨진 일이다.

또한 1922년 3월 22일자 東亞日報에 의하면 흥천면 사무소가 협소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李敏應은 三千餘圓의 경비를 단독 부담하여 洞事務所 청사를 新築하고 寄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응의 선대에 어느 한분인 祖母께서 긴세월에 병환으로 눕게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몸과 머리에 이(齒)가 번식하여 애로가 극심한 처지에 시어머니의 간호와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시어머니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본인은 머리를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서 姑婦간에 머리를 맞닿게 하여 이(齒)가 며느리 머리에 옮겨지도록 한 가특한 정성의 孝心을 극진한 화제가 왕실까지 알려지고 나라로부터 孝婦褒賞까지 내렸다하며 金盤形 고을에 孝子 및 孝婦들의 정성을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교훈이라 한다.

㊤ 育英事業을 광범위하게 利川-驪州에서 孝子孝婦들의子女들에게 장학비를 부담하면서 더 발전하여 人材育成에 힘을 싣고 출범한다. 驪州에다 광범위한 農土를 관리하기 위하여 營農技術을 익히도록 農導講習所를 設立하고 驪州 陵西面 旺垆里에 영농지도 강습소를 두고 여주, 이천, 광주등지의 넓은 옥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 업적도 구한말의 지역적 私設運營을 보기도문 사업까지 육성했다는 것이다.

한편은 1943년경 驪州 幾東學院設立을 하고 1946년 학원명칭을 변경하여 幾東女子中學校로 발족한 후 오늘에는 여주중학교, 여주여중고로 이르게 되었다 한다. 이 사실은 壽春先生의 증손과 인근 사람들의 증명한 사실로 밝혀진다. 그는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成均館育成과 成均館大學校 財團法人을 創設하는데 善隣會財團을 寄附하게 되면서 모은 資產을 國家나 社會에 기여함이 대단한 업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成均館大學校와 成均館의 육성사업에 관하여 成大 600年史와 儒林 50年史에 記錄이 전해진다.

㊸ 鐵道事業 壽春先生은 그동안 많은 資產을 增殖으로 하여금 鐵道事業에 投資를 하고 私設鐵道建設에 까지 손을 뻗었다. 近來에 確認된 사실이다. 우리나라 鐵道百年史에 記錄을 살펴 보면은 1930년도 朝鮮京東鐵道線 開業으로 營業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1930년 1월 철도부설 면허를 득하여 수원~이천간 53.1km (利川~驪州간 20.3km)를 그해 12월 1일 영업개시 했다고 기록하고 1946년 5월 10일 南韓所在 私設鐵道 및 부대사업 일체를 國家運輸部(現 交通部)에 흡수 國有化했다고 記錄하고 있다. 私設鐵道는 朝鮮경동철도선(주)으로 건설사업에 손을 뻗쳐 利川~驪州간 철도공사에 投資하여(투자내역은 本人의 禁止事項) 1931년 12월 1일 營業을 개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사실은 柳濬相(79: 노원구 상계동)씨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외의 근거자료는 없다. 현 여주읍 흥문리 72의 郡民會館 자리가 옛 水驢線 驪州驛 자리이다. 이 수역선은 그동안 많은 心的物的 資源수송역할로 지역사회에 큰 활용을 해왔으나 政府에서 廢線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인부설 철도선 木炭車의 운영사업은 종말을 짓게되고 영원히 사라진다.

㊸ 文化財 華東綱目の 密賣를 막아 壽春 敏應은 1926년 초기에 華西李恒老先生의 業績인 遺物品 華東綱目 木刻版이 倭寇의 京商들에 弄奸으로 密賣된 것을 급히 서두르고 巨金 수만량을 지불하고 회수한 일은 나라가 팔려가듯 하여 우리 朝鮮祖上의 文化財를 찾는 데 기여한 공로는 지대한 일이라 하겠다. 華東綱目文化財는 처음 春川 南面 柯亭里서 版刻되었다. 現在 史蹟地 紫陽影堂에 文化財(36호)로 지정되어 堤川 鳳陽 公田1里 475 長潭에 있다. 이 版刻은 華西集과 雅言의 木版이 所藏되어 있다. 朝鮮後期 華西李恒老先生의 수제자 省濟 柳重教(1821~1893)가 高宗26(1895)년 滄州精舍를 후에 紫陽書社로 하고 후진양성 하던 곳이다. 高宗26(1895)년 義兵隊長 毅菴 柳麟錫이 八道儒林을 모아 倡義의 秘密會議를 가진 곳으로 유서깊은 곳이다. 文化財 華東綱目 本文이 1852~1864년에 완성되었다. 1905~1906년 柳麟錫, 崔益鉉, 柳重岳등

發文과 1907年 4월에 刊行하였다. 이 冊은 木版本 총 33권 33冊으로 影印本 上下 그 책 1318쪽 달하는 방대한 물량이다. 宋나라 원사와 高麗歷史를 엮은 合編한 것이다. 華東綱目은 手製자 柳重教, 金平默은 스승의 뜻에 따라 編纂한 것은 文集에서 밝혀 주고 있다. 총 3300餘枚가 된다. 이 文化財가 처음에 春川 柯亭里에 보관된 것을 楊平 西宗 蘆門里 蘆溪에 華西先生 生家の 東쪽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구한말 倭政恥辱으로 因하여 保管維持가 어렵된 환경에 不幸하게도 京城富商들 弄奸으로 倭寇의 손에 팔려가는 遺物은 密賣品으로 잃게 되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壽春 李敏應은 서울 丹雲 閔丙承參判과 두분이 文化財遺產 密賣受難을 막기 위하여 당시 金錢수만량을 代價로 出力하여 회수하고 驪州~興川~金盤形 南漢江변으로 옮겨서 소장한 이후 甲午年(1966) 公田里로 移管하고 현재까지 版閣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篤志家 李敏應의 손길로 용단과 기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잃었을 것을 생각하건데 다행히 찾아서 보존하게 된 文化財遺產은 그의 발휘한 솜씨가 時代的 얼을 남겨준 愛國精神이 새겨져 있다하겠다.

㉔ 臨政軍資金 密室支援說? 壽春 李敏應은 갖가지 업적을 남기면서 오직 倭政恥辱에 있으면서 나라의 서러움을 달래기는 만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루는 뜻밖에 1926년 10월 28일 밤 獨立軍 延安人 李壽興(당시 23세 : 利川出身)은 富豪家 李敏應을(당시 50세) 찾아서 軍資金을 요청을 하게 된다. 壽春은 殖産會社 設立하느라 많은 돈을 썼으므로 가진 돈이라곤 6원뿐이라 하고 內 농자 李壽興義士는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는 利川市誌에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의심과 믿음이 가지않는 것이 일면 생각해 볼일이다. 壽春은 敏應의 再從姪인 允鎔이는 善隣會 理事로 있을 때에 그 당시 事務長 崔善鎔이와 같이 근무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詳細하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允鎔의 아들 海鍾(79 : 楊平 지제면 거주)씨가 직접 아버지로 부터 전해들은 것이 敏應의 從曾祖께서 “李壽興義士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암시를 듣고, 금액을 밝혀진 것은 알수 없으나 會社의 事務長으로 하여금 巨額을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確認할 수 있는 資料는 없으나 진실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근래 와서 확인된 사실로 밝혀진다. 平素 性稟으로 보아서는 自己가 한일은 일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엄히 꺼려왔음으로 時代的 社會像의 近接된 상황으로 보면 朝鮮땅에 있을때나 滿洲에 있을때나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도 根據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궁금증이 가중되고 확인하기가 어렵게 영원히 지워지는 것 같다. 李壽興義

士는 父, 李日衡은 의병시절 의금부총재 “채상덕”을 만나서 스승으로 모시고 감화를 받고 아들을 김좌진 장군하에 신명학교에 입학시켜서 독립군 간부교육을 받고 독립군에 가담하게 하여 한일투사로 활약한다. 1928년 까지 2년간 국내서 독립투사로 동소문 사건 등 4개 사건을 발발시키고 활동하다가 6寸兄 李俊聖의 밀고로 체포되어 1929년 2월 27일 25세 꽃다운 나이에 포부를 펼쳐 보기전 교수형에 처해져 순직하였다.

지금은 국립묘지에 유해가 안장되고 있다. 여기서 좀더 생각할 점은 李敏應은 平素生活像을 감지해보면 사업의 管理面에서도 업무보고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은 사회의 독지가이며 貴戚의 巨富로서 난세에 있어서 獨立軍 資金關係는 전혀 드러나게 말이 없는 것을 시대적 배경에서 살펴야 한다고 생각된다. 때가 민비 시해 사건과 乙未義兵의 家族關係 또 王家의 國家主權回復 사회적 위치등을 감안한다면 軍資金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심증은 가능한 짐작뿐이다. 이민응은 한 일들을 노출되는 데는 금지사항이었으므로 절대적 소신은 변함없는 처신한 점은 가히 그분의 生活信念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기록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

④ 財產增殖

壽春 李敏應은 利川 玄方里에 會社를 두고 인접된 驪州 外絲里 金盤形에 居住한다. 生父는 養父의 財產으로 春川 南面에서 무려 3000섬을 가지고 광주, 여주, 이천에 재산증식 사업에 몰두하게 되면서 三個地域에 各各 1000섬씩 배당 설치하고 토지 所有範圍는 제천, 춘천, 청주, 양구, 원주, 양평, 양주 등 밀원에 양곡 증식장려 사업으로 해마다 느려가고 宗班家の 根幹으로 기반을 두고 國王의 善政만큼 못지않는 지역 사회에 민심을 살피가며 함께 살아가는 소탈한 인간으로 여겨진다. 그는 많은 부동산을 갖고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한해의 소득만큼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재산관리면을 사무적 업무보고만 접하며 가업운영형태를 갖추고 일들을 다스리면서 모든 공은 밖으로 나타내는데는 엄히 꺼렸으며 노출을 금하였던 것이 평소 소신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부호가의 주인공이지만 신념대로 검소한 생활차림으로 무언에 실천하는 품행으로 생활신조처럼 살았다고 손녀 玉姪씨는 전한다. 그의 주위에는 밖

이나 가정이나 검소한 모습은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人物로 사회의 공적이 지금도 여러곳에 밝혀주고 있다.

① 利川 栢沙 玄方里 玄方公園 부지 3000餘坪 寄附한 곳에 「財團法人 殖産會社 設立記念碑」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져 있다.

② 驪州 興川 外絲里 金盤形고을 앞에 「前學部參書李公敏應記念碑」라고 초라하게 說壇되어 있고 碑文은 「貴義輕財 陸族善隣이요 有辭百世, 無愧古人(1995년 12월)」이라 기록되고 있다.

③ 驪州 上里 迎月樓公園에도 「財團法人 幾東保隣社創立記念碑(1940년도)」가 크게 堅立되어 있다. 이 三個碑의 기록을 살펴보면 壽春 李敏應의 社會的 篤志家로서 이룩한 功績課業을 역역히 기록한 기념비이다. 지역에 크나큰 은행창구 역할을 한 殖産會社와 義粧事業으로 同族愛와 教化事業을 베풀고 營農技術普及과 貧民救濟事業을 펼쳐온 업적을 기념한다하여 1940년 여주군수 “박수명” 이가 세웠다는 기록에는 본인은 빼고 아들과 조카 명의로 양곡 1000섬을 빈민구제용으로 기증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 李敏應의 愛民精神은 地域社會에 기여한 업적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 地域社會의 歷史에 새겨두어야 할 일이며 후대에 빛이 되고 산교육이라고 받아드려 지고 있다. 財産은 사업번성으로 年間 수확량은 7000섬을 상회하는 증식재산을 사회에서는 일만석군이라고 일컬어졌다. 수확량만도 年間 800섬을 生産했다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光復後 農地改革史編纂資料 ① ②를 參照 보기) 東亞日報 1931年 6月 4日字 記事에 의하면 敏應은 1923년 현금 33,750圓을 드려서 노약자, 질환자, 불구자, 채무자 등을 구제하고자 善隣會 組織을 착수케 하고 法人으로 하여금 519명을 우선 구제하고 1927년(丁卯) 幾東保隣社를 組織하여 春窮期에 農事를 짓지 못하는 영세농민들에게 565명을 구제하고 또한 勤農社를 조직하여 현금 3,000圓과 벼 170석을 出資하고 영세농민들에게 20圓씩 年 7푼으로 대여하고 高利 대금을 근절시켰는가 하면 小作農民들에게는 8할을 주고 本人은 2할만 차지하는 등 貧民을 윤택케 했다. 잠업장소를 마련하고 營農技術을 보급하였으며 이에 營農思想을 고취시킨 분이다. (資料 보기 ③ 參照)

그래서 만석군 李參書라고 불리워진 由來라 한다. 한편 壽春은 父로부터 經書를 터득하고 18세에 科擧入格하고 붓을 놓지않고 글을 읽었으며 훗날에는 「五倫原理」란 著書까지 펴낸 선비로서 알려지고 저서가 보존되고 있다. 子女教育은 아들 三兄弟를

신학문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오직 孔子崇尙에만 변함없었다고 전한다. 어릴적 士大夫의 孫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는 10세에 이웃 參奉 坡平 尹泰吉의 딸 貞植(9)을 맞으며 冠禮를(三加禮) 가졌다 한다. 尹參奉은 가난하여 어렵게 청빈한 선비로 딸만은 人物이 天下의 一色이라 宗班家の 敏應과의 관계를 두고 일찍감이 데려다가 한가족처럼 생활하여 온 후 1886년 三加禮를 거쳐서 서울 柱洞에서 혼사를 이루웠다고 후손들은 자랑삼아 전한다. 이 婚事를 갖게된 記錄을 毅菴集 251-2쪽에 李敏應의 字說에 柳麟錫은 1890년 9월에 習齊 李昭應의 宗子인 再從弟 敏應의 冠禮를 하면서 字를 敬行이라하고 인석(나에게)으로 하여금 그 冠禮를 돕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後孫 瑞鎔(63)씨는 祖母께서는 어릴적부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서 길거리에 거닐면 이웃사람들이 너무나 쳐다보아서 민망스러워 바깥출입을 삼가할 정도로 美人이었다한다. 1907년 婚事後 金盤形에서 長男 載重을 갖는다.

㉑ 滿洲로 가다.

壽春先生은 1931년 이후에 만주로 移動하면서 꿈을 안고 만주벌에 꿈을 실현하고자 할때 여주군수 文泰善(1927~1931년)이가 朝鮮總督府의 滿洲副領使로 부임하게 되자 文군수와 같이 가게 되었다고 後孫이 전한다. 이 무렵 1884~1945년까지 全盛期를 타고 있었다. 여주에서 30여년 생활터전을 일부 청산하고 대륙을 밟아 天下의 天子가 되겠다고 떠난 것 같다. 이러한 꿈은 사실을 밝혀준다.

東亞日報의 資料에 의하면 南滿公司 設立을 하고 精米所를 運營하면서 在滿同胞를 위하여 대련, 봉천, 무순 등지에 사업을 확장한 사실이 밝혀진다. 당시 毅菴先生의 孫子 柳濬相(79, 만주태생)씨가 13세대(1934) 祖父따라 만주奉天에서 居住 무렵 李敏應과 알게되고, 奉天서는 가져온 돈으로 터를 잡고 大陸에 天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마음이라고 祖父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때에 祖父의 소개로 알게된 것을 밝혀 준다. 敏應은 처음 布木店舖를 開業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신통치 못하자 문을 닫고 다시 다른 사업구상을 하게되고 만주의 넓은 광야에 농토를 보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中國人과 같이 精米所를 설립하여 사업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도 사업이 시간이 가면서 奉天還境은 그들의 사업장을 드대로 돌리가 없었다한다.'

대륙적 환경과 倭政의 감시와 주위의 馬賊들의 횡폭과 불량배들의 난무한 도둑떼

들과 밤낮없이 괴롭혀오게 되고, 한때는 아들 載重이를 납치 인질까지 하는 사태발생으로 그는 거금을 빼앗기고 털리면서까지 시달리다 못해 남은 資產을 청산하고 祖國으로 귀향길을 택하는 비운을 안고 기대한 희망을 송두리채 미련없이 떠나는 일만이 상책으로 발길을 朝鮮故鄉길로 돌리게 된다. “이때에 한 逸話는 倭警의 수상히 여기고 獨立軍과의 密接한 관계를 캐기 위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日警은 말인 즉 당신 부하가 3천명이나 된다니 사실인가 따졌다. 敏應은 태연하게 대답은 三千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워졌다고 하는 기지발휘로해서 모면했다는 이야기는 흥천군 남면 명동리 兪炳圭(68)씨가 전한 일이다. 이것은 그가 움직이는데는 감시가 따랐다는 증명한 일이다.” 그가 만주갈때는 가진돈이 당시의 一萬餘圓을 投資한 사실이 1931년 6월 4일자 東亞日報에 밝혔듯이 巨금을 휴대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35년 후반에 開城으로 이주하려고 하루가 지겹도록 지친곳을 떠나려고 동부서주로 길을 찾아나선다. 그의 친구 개성출신 孔鎭學의 주선으로 개성에 정착하게 된다. 이무렵에 민응의 발길은 옮기는데는 쉬운일이 아니었다. 朝鮮이나 만주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人物로 감시가 뒤따랐다. 倭政과 馬賊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奉天을 떠날 준비에는 木棺과 喪輿를 꾸며서 屍身을 運柩한다는 형식을 갖추워서 그 관속에 숨겨지고 奉天서 開城까지 鐵馬에 싣고 인명피해없이 무사히 귀착할 수 있었다는 연극같은 지난일들은 금세기 보기도문 화제로 지금도 운구상여인이 3000여명이나 따랐다고 전하는 진상이다. 李敏應은 개성 雲鶴町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을 시도하고 文房具店을 차렸으나 낯선곳으로 영업이 좋을 리가 없었다. 여기서도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開城商人들의 商術은 옛부터 알려진 특이한 지역으로 地域住民이 아니면 텃세에 어려움을 감내하기가 힘겨운 환경이었다. 그러한 사유는 개성의 商權민심은 자가지방민의 생활권 단결로 外部人의 상권은 인정하지 않고 商品去來까지 外部人과 단절로해서 개성풍토에 소외당한 일이 사업시초부터 부딪쳐서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2년만에 포기하게 이른다. 이렇게 텃세에 밀려나면서 정든 故鄉으로 歸鄉을 서두르게 된다. 開城에 도착한지 2年을 맞으면서 1937年 2월 28일 雲鶴町에서 回甲을 맞이한다. 이때에 서울과 고향친척들과 개성에서 회갑잔치를 베풀었다는 진상이 밝혀진다. 1938년 그는 다시 金盤形으로 귀향하여 전과 다름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長男 載重이는 33세에 나이에 잃게되고 비운을 맞는다. 그후 長孫 南鎔이에

게 각별한 사랑을 쏟게 된다. 次男은 普應伯氏 앞으로 養人되고 도봉구 미아리에 거주한다. 三男 載聖만은 利川에서 살고 있었다. 壽春은 그간에 남겨둔 財産을 관리하면서 아들을 잃은후 1941年 城北區(고려대학 의료원 뒤)에 집을 마련하고 임시 거처를 왕래하면서 1943年 世界 第二次大戰이 발발하자 國內에 소개령이(피난) 내려지면서 가족은 서울과 여주에 두고 혼자 江原 洪川 北方面 驛田坪里에 居住하는 再從弟 復應(당시 양조장경영)이가 있는 곳에 피난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기와집 기억자 모양으로 짓고 임시 2년간을 운둔하면서 인접주민들에게 서당 글방공부를 가르치며 소일한다.

北方面 역전초등학교 3회 졸업생 德水人 李種德(70:철원, 동성읍 이평리)씨는 1944년 14세때 李敏應에게 맹자공부를 배웠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先生은 洪川땅에서 光復을 맞이하고 종로 明倫洞 一街로 上京하여 1946~1947년까지 成均館 財團法人에 참여하게 되고 平素의 교분이 두터운중 鄭寅普(6.25 납북) 周時經(1876~1914) 안동인 金東淳과 벗으로 지냈다. 鄭寅普는 매일 두차례씩 여주 金盤形에 들렀다한다. 壽春 그는 光復이후 서울로 발걸음이 옮겨진다.

1946년 10월말경 李敏應은 大韓民國 初代 副統領 李始榮의 親書를 接하면서 明倫洞으로 居處를 옮겨진 것은 8.15이후 成均館 및 成均館大學設立 關係로 財團法人을 세우기 위하여 親書內容의 要請協助事項에 임하여 心山 金昌淑 先生과 뜻을 같이 하게된 동기가 이루어진다. 이 무렵 親書 傳達과정의 任務를 맡고 活動한 成大一期生 柳濬相(79:노원구 상계동)씨는 心山 金昌淑의 뜻을 따라 驪州 金盤形에 李敏應과 利川郡守 閔玉仁(1946년 10월~1946년 12월 9일 근무: 당시 당연직 선린회 이사)에게 副統領 李始榮의 親書를 直接 傳達했다고 기억을 생생히 살리고 있다. 또 하루는 學生 金翺煥, 尹赫東, 柳濬相은 財團法人 創立에 著名人事를 모셔오기 위하여 春川에 柳海東(濬相의 父)씨를 모셔서 財團에 理事로 모셨다한다. 이때 財團法人 成均館 理事는 정인보, 김성수, 유해동, 김창숙, 유옥겸, 최석영, 변영만, 이민응 등 9명이 初代理事로 선임되었다 한다. (崔錫榮은 心山秘書겸 事務長으로 있었다) 篤志家 敏應은 善隣會 法人財産을 寄附하여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成均館과 成均館大學의 設立認可를 받게하여 많은 功을 이루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白凡 金九先生께서도 李敏應의 덕을 방문하고 용단내려 주어서 기쁘다고 격려차 두차례나 들렀다 한다.

한편 儒林運動 50年史 記錄에는 成均館 初代 理事長 金昌淑, 副理事長 李敏應이고

常任理事 崔錫榮으로 記錄하고 있다. 1946년도 儒林會長도 金昌淑이로 적고 있으며 儒林會에서 財團法人 成均館大學 期成會가 組織되면서 善隣會財團을 寄附로 發展하고 大學設立認可를 文教部에 申請하여 1946년 9월 25일자로 정규인가로 득하여 정규대학으로 창립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李敏應은 儒道會에는 成均館의 亞獻官을 지내고, 顧問으로 추대되었다.

1946년 6월 成大期成會 發足시에 崔錫榮의 弄奸으로 새집행부 구성을 놓고 이사진과 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졌다 한다.

여기 儒林 50年史에는 1947년 3월 5일 재단 成均館 設立은 金昌淑, 李敏應의 名義로 신청하고 그해 5월 8일 정식인가를 득했다고 적고 있다. (文教部指令65號 認可) 그러나 成均館大學校 600年史에 학교인가 이후 이사장 趙東植(1887~1969)으로 되어 있고 學峯 李錫九(忠南)는 學隣會를 寄附하고 善隣會등도 寄附 받았다 하고 成大設立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기록은 成均館 財團法人 母體를 大學期成會 組織構成의 初代 이사진은 기록에 빠져있음을 유준상(79)씨는 산증인으로 600年史에 記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앞서 기록을 보면은 이민응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사회육영사업에 어느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높았으며 여주와 서울을 생활권에 묶어놓고 분주히 활동을 전개한다. 成大史에 일부 이사진과 이민응이 빠진 것을 최석영 사무장이 2次 재단영업자 동덕재단 조동식을 영입하면서 농간으로 一次 집행부를 무력케한 것이 발단하여 유해동, 이민응은 출입을 일체 금하고 이 두분은 재단을 승인을 받은 이후 낙향하고 두문불출로 거리를 멀리하고 인연을 끊었다 한다. 이 뿐이겠는가. 사랑채에서 가끔 큰소리가 나고해서 후일에 확인된 것은 心山과 壽春間의 南人과 老論의 異見과 勢로 인한 다툼도 있었다고 子孫은 귀찮다.

⑥ 全盛期와 沒落

앞서 여러가지 방증을 했으며 마지막 壽春 李敏應先生의 生涯와 行蹟은 國家나 社會에서나 名譽의 得失은 진폭이 교차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宗班家의 族系로 태어나서 富貴榮華를 누려온 在野의 人物임은 틀림없다. 父의 기존재산으로 증식화하고 금융업과 육영사업, 빈민구제사업, 철도사업, 문화재보호사업 등

굴직한 과업을 무난히 이루면서 사회적면에 크나큰 업적을 세웠다는 記錄文이 증명하며 특히나 貧民救濟事業만은 두드러진 과업으로 愛民精神이 깃든 것은 자랑으로 귀감이 된다. 그가 타고난 선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가능한 관찰이다. 國家나 社會의 物心兩面으로 寄與한 業績은 篤志家로서 大業을 이루고한 이 공적만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그 많은 財産은 增殖하여 人的物的 管理는 生涯의 50年間 全盛期를 맞이하고 年間 營農수획량은 7000섬을 상회하였으며 저반 사회의 빈민구제사업에 1000섬을 베풀었다는 기록은 남다르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하면 文化事業중 育英事業에 財團法人을 寄附함은 엄청난 寄與도라 하겠다. 鐵道私設은 늦게 밝혀진 일이지만 國家的 과업에 일환으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가 가는 쪽에서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지금도 서울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의료원 뒤)에서 善隣會 財團名義로 유일하게 瓦家가 현존을 하고 孫女 興順女史가 살고 있으며, 사소하게 열거는 할 수 없으나 壽春先生의 자취는 50年の 黃金期를 누려온 것이 차츰 벗어나기에 이른다.

여기서 全盛期에 지나고 노령기를 맞으면서 時代的 흐름과 같이 財産은 줄어든다. 原因을 分析하면 ① 1930년대의 滿洲길에 財産을 蕩盡하고 失敗를 가져왔으며 ② 1946년 財團法人 成均館 및 成均館大學設立의 育英事業을 위하여 財團法人 善隣會를 寄附하게 되고 ③ 1948년 制憲國會이후 土地改革法 施行으로 많은 資產을 잃게 되었다. ④ 光復以後 6.25사변과 1.4후퇴의 國難時期에 損失被害도 있었으며 이렇게 還境의 變化에 따라 李敏應은 꿈과 젊음이 하루같이 짧은 듯이 황혼기에 接하면서 興亡盛衰의 길목에서 아쉽게도 마지막 길에 접어든다. 壽春의 걸어온 길목에는 波瀾萬丈하다. 李敏應은 貴戚의 後裔로서 좋다는 곳 山川따라 富貴榮華를 누려온 분이 다. 先生의 生涯의 行蹟은 앞서 밝혔듯이 多大한 業績도 남겨 놓았으나, 1950년 6.25사변으로 수유리(장미골)를 거쳐 광릉산 '머묵골'에서 피난을 하고 1.4후퇴(1952)시 驪州로 피난길에 任世淳 님에서 잠시 은거하고 다시 忠南保寧 신흥리(후포)서 3년을 살았다. 그 시기에서 壽春은 서울 수복후 次男 載正이가 居住하던 미아리로 찾아 새 생활터를 살피오면서 보령서 上京하기 위해 드나들던중 1954년 봄 도로상에서 트럭에 받쳐 후두에 상처를 입고 一年간 鬪病 끝에 1955년 3월 4일 한 生涯의 마지막 悲運을 맞게 되었다. 그의 선영은 始興郡 西面 下安洞 山 88-1에 있다.

그의 자취는 화려하면서 남들이 동경하는 人物로 성장했으며, 한때는 富豪家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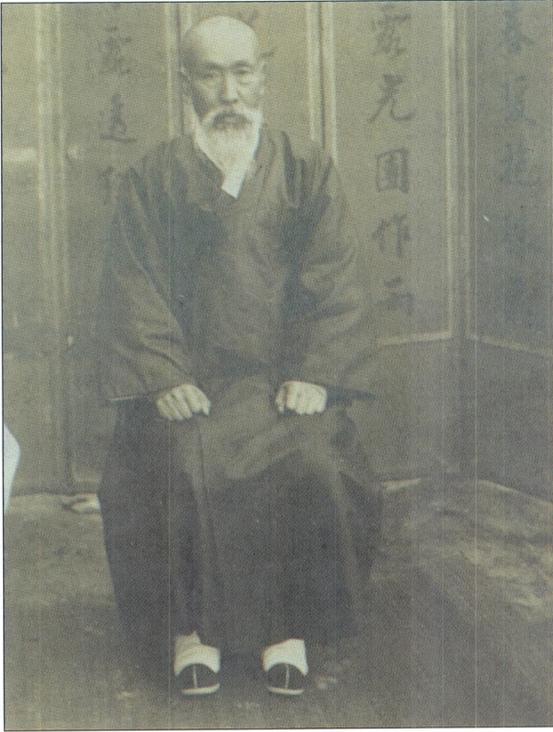
로 나아가 篤志家로서 발돋움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愛族精神을 심어놓고 儉素한 생활정신만은 社會의 龜鑑이 되고 말없는 實踐을 率先垂範하여 社會秩序에 앞서갔으며 模範의 人物로 脚光을 받은 것이다. 그의 族系로는 再從間의 從叔父 李勉洙를 비롯하여 春川 義兵長을 활약으로 1895년 義舉때 李普應, 李景應, 李晚應, 習齊 李昭應 義兵長 등은 義兵의 家族으로 歷史에 뚜렷이 남김이며, 한편 선비로서 參與한 抗日運動은 春川 의병사에 功績을 새겨놓은 자취는 크다.

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집안으로 들여다보면 한편 일반 사회적 위치에서 多大한 과업을 이룬 壽春先生의 功績記念碑가 걸맞지 않고 초라하게 세워져 있으며 그가 많은 資產을 가진 義兵家族으로 社會에 國家에 寄與한 일들은 春岡事績記와 李晚應의 家庭訓行錄이나 李景應의 實記, 柳麟錫 毅菴集에 記錄되고 있다. 李敏應의 生涯期에 國家의 寄與度는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한 功績이 認定되고 根據에 의한 立證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로 보여지며 社會의 篤志家로서 未發掘되고 있는 숨겨진 愛國者로 밝혀진 人物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어찌보면 「버려진 愛國者」로 묻혀있는 人物을 초라하게 외면한 것은 後孫에게 부끄러움이고, 祖上에게 面目없게 된 사적을 살려 가는 文化的 意味가 아닌가 生覺된다.

당국이나 그 地域社會에서 하루빨리 부끄러움이 없겠끔 利川이나 驪州에서 다같이 이분의 사적기념(동상)이나 크게 새겨두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하겠다.

그가 남긴 글씨 春川 「鳳儀山」 昭陽亭 懸板에 「鳳山, 明月夜, 牛野日千秋, 清興誰先覺 昭陽江上鷗」란 글은 신정균 글씨는 李敏應書라는 記錄도 남겨지고 있다.



수촌 이민응 선생



개성시 윤학정 (회갑사진)

흥천면 외사리의 기념비



이천 백사면 현방리
선린회 기념비



영월루 기동보린사 창립기념비

及法令에 對한 研究를 交換한 故
百하였다(水鏡)

李敏應氏의 畵附

麗州郡興川面事務所長從來 狹窄
할 爲 因 故 於 該 處 上 不 便 이 多 故 於
該 處 外 移 李 敏 應 氏 가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一九三二年 壬戌)

貧農民의 活佛

各種의 救濟事業

소재료로 二합을 바다

○麗州郡李敏應氏

麗州郡 興川面 事務所 長 李 敏 應 氏 가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麗州郡 興川面 事務所 長 李 敏 應 氏 가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麗州郡 興川面 事務所 長 李 敏 應 氏 가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자 己 의 功 勞 를 爲 記 하 亞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자 己 의 功 勞 를 爲 記 하 亞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자 己 의 功 勞 를 爲 記 하 亞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자 己 의 功 勞 를 爲 記 하 亞 三 千 餘 圓 의 經費 를 加 獨 資 設 計 하 亞 固 面 事 務 所 新 築 畵 附 故 기 可 하 亞 多 矣 다(星州)

민족중심 문화의 정립은 곧 민족혼의 정립



여광복지회장 박 윤 한

- 여광직업보도원장
- 여주중앙감리교회 장로
- 여광복지회장
- 세종문화운동추진위원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외형상으로는 민족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거나 구체적으로 고찰할 때 결함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뚜렷한 표상을 세우지 못하고 민족적 중심문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의 뿌리요 토대가 되는 민족적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교육이 선행된 후 지적교육, 기능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나 한국적 자존심을 정립해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됴므로 도덕적 인격교육이 결여되고 국가관 애국애족 정신이 뚜렷하지 못한 허술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된다. 단일 민족이고 여러모로 탁월한 한민족 자신이 잡다한 민족처럼 느끼면서 세계화 시대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자위하는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화 일수록 민족의 뿌리와 토대를 확연하게 하지 않고는 국력이라는 단어를 성립 신장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주체성 의식이 빈약한 상태로 세계화 물결에 휩쓸려 간다면, 한민족 특유의 영특 강인한 기질은 상실되고 허약한 민족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즈음 들어 수많은 부정부패, 패륜, 폭력, 비리 등이 점차 극대화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대적 현상이라고만 보는 경향이 큰데 치부해 두어서는 안된다. 한민족에 있어 민족혼과, 국가관만 바로 세우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줄어들고 도덕적인 우월한 민족으로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기상 교육을 위해서는 뚜렷한 인격적 표상이 제시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표상이 고래로부터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데, 최근 단군상을 학교마다 세우고 단군 숭배의식으로 민족혼을 살려내고 국가관과 화합의 기틀을 배양하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음을 본다. 이분들의 시대현상을 애타하는 애국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경의를 표할 것이나 현시대에서 신화로는 민족혼을 살려낼 수 없다고 본다. 그럼으로 민족혼의 바탕이 되고 민족기상의 본이 될 실제 인물을 추대하고 한민족 본연의 기상은 이런 것이라 제시하고 후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릴적에 민족의식 국가관 배양만이 이 민족이 새로워 지고 국가가 세계위에 설 수 있다.

어릴적에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한국인은 영특하고 높은 재질의 민족이라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민족적 자존심과 우월감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한민족 본연의 기상을 세웠을 때 한국사회는 참신하고 우월한 민주주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새로운 변모를 볼 것이다.

어린이에게 지금까지는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서 식민지 교육체제의 교육방식인 암기식 일등주의 교육으로 사대시대, 식민지시대의 잘못된 민족의식을 잘라내는데 등한시 하였다기보다 민족의식(민족혼) (만족적자존심)을 더욱 쪼라 붙여서 정치, 행정지도자까지 부패행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한국민족에게 있어 그 인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개개인의 우월성과 자존심은 심히 높은 편이지만 국민적 견지에서 민족의식, 국가관과 국민적 자존심이 쪼라붙은 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연유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 첫째는 대한민국이란 자주민주국가가 성립되었지만 국민적 인성교육을 등한시 하였을 뿐만아니라 국민적 구심점과 표상이 없이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것은 사대사고 식민지 사고를 아직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개혁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한국사람 이상으로 애국애족을 찾는 국민도 없다고 단언해도 잘못이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허나 그와 반면에 국가관이나 의식이 빈약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다 다시 말해서 애국애족은 빈말일뿐 국민의 머리속은 엉뚱한 생각에 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는 깊은 자성이 필요하고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지도층의 국가의식 결핍이고 거기에 대한 새롭고 확고한 대책이 없을 때는 국가적 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머리가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확실한 표상 즉 교육적 모랄(정신적 지표)과 심벌(인격적 표상)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적극적인 국가의식의 배양은 의식이 전혀 생성되지 않은 갓난 아기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

일본은 200년전에 벌써 태양신이 그들의 조상이므로 세계를 밝힐 능력이 있고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제를 내걸고 고을마다 신사를 세우고 가가호호 안방에 신전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무릎꿇고 손뼉치며 예를 올리는 기구(祈求)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의식없는 갓난 아기때부터 부모를 바라보며 은연중에 애국의식이 착근 되게하는 사실을 그저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거나 간과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수 많은 인구가 한데 뭉쳐 국난을 극복한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민족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사상을 구심력으로 했고, 2천년 유랑의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란 기치아래 한데 뭉쳐 그 험난했던 건국의 성업을 달성했지 않은가.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태아적부터 보여주며 안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선한 일과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간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위에 손을 얹고 성경대로 통치하겠다는 선서를 하므로써 만백성의 행복추구에 전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이른바 최고의 교유기관이라는 향교와 성균관에다 남의 나

라 인물인 공자와 맹자 영정을 모셔놓고 그나마도 양반계층만 참례하고 있었으니 어찌 확고한 국가관이 싹틀수 있었겠는가. 이것저것이 뒤섞인 질서없는 교육으로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오늘날 우리민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한 현상(당쟁·부정부패·패륜·기만·중상모략등)은 대개가 민족정기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신이 박약한데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의 표상과 민족정신 교육의 바탕이 되고도 남는 세종의 이상과 정신 그리고 업적을 바탕으로 지적교육에 앞서 민족정신 즉 도덕적 국민성과 국가관 함양에 주력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생기고 민족정신의 참된 뿌리가 내려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디 내 놓아도 손색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세종은 들연변이가 아니고 한국인 표준형임을 인식하고 누구나 세종이상의 우월성과 재질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성과 국가관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어릴적에 주입시켜야만 원하는 인격이 갖춰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인이 다 되어서 애국애족 부르짖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으로 자기를 희생시키고 생명을 바칠만한 의식은 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좋은 재질과 기질을 타고나 세종대왕같은 인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사대사상에 젖어 진취적 기질이 위축된 데다가 바른 방향제시 마저 없어 정상적인 민족복원의 길이 더 더덕진 것이고 한국사람은 단합이 안되고 분열이 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 모든 것은 탁월한 기질을 발휘할 동기를 못 찾은데서 오는 현상으로 어릴때에 큰 꿈과 민족관, 세계관과 한국인은 영특하고 높은 재질의 민족임을 깨닫게 하고 자존심과 우월감을 배양함으로써 한국인 본연의 기질을 바로 세우기만 한다면 당할 민족이 없을 것이다.

정치개혁, 기업의 구조조정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성교육의 표상정립이란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는 바는 한국인적 정신적 지표와 민족기상적 표상으로 세종정신과 세종의 업적을 토대로 지적교육에 앞서 인간적 도덕성과 한국인적 정신과 국가관 교육을 유아시

기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곁해서 어릴적부터 바른신앙 교육이 중요한 사실이다. 세종문화가 꽃을 피지 못한 연유가 몇가지 있겠지만 첫째 연유가 종교적 기반이 없는데서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이다.

재차 강조하는 바는 국민적 사조 (국민의 현실적 의식구조)는 몇십년 몇백년을 내려 오면서 뿌리가 깊이 나리고 가지가 무성한 상태인데 설득과 정치행정 조종으로 성과를 거두려는 것은 누를 범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의 국가적 개혁 역사를 보면 첫째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였고 새로운 종교개혁과 교육개혁과 아울러 풍습개혁에 역점을 두었던 것을 볼수 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민족정기의 토대와 구심점을 세우려는데는 누구도 관심을 갖는이가 없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미개풍습이 국가의 전통적 기본인양 존중하는이상 개혁결과는 말만의 주장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정치가 표에 급급하는 당리당약에만 집착한다면 앞날이 밝지 못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I. 세종의 업적과 사적(史的) 고찰

◎ 세종대왕이 세계 인물사에 오른다면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 됐을 것이다. 그런 세종대왕의 문화를 꽃피우지 못한 것은 우리민족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확신한다.

1.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그 업적을 빛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글창제는 불타는 애국충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지만 당시 종속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도 중국글인 한문을 썼을 뿐 아니라 우리 역사보다 중국역사를 주로 배웠으며 예절도 그랬다. 세종이 자주를 확립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려 했으나 뜻을 펼 수 없는 형편이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주성과 정신력을 배양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그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천신만고 끝에 한글의 완성을 본 것이다.

한글과 같이 위대한 글을 창제해서 민족사를 개혁하겠다는 그 큰 뜻을 바로 우리민족의 손꼽는 재질의 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종교계와 사회학에서 주장하는대로 사람이 큰 뜻을 세우고 실천하면 초능력적인 위대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한글창제가 바로 그 산 교훈이다.

2. 한글 창제와 반포식은 세계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당시는 왕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즉위할 수 있는 절대적 종주국인 우리가 중국의 글은 쓰지 않고 자기나라 글을 쓰겠다고 한글 반포식까지 한 것은 가이 경천동지할 혁명에 다름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당시의 세계사적 상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혁명의 성공뒤에는 이야기도 많은법.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곡절도 많았다. 세종형제중 가장 영특한 세재왕자 충녕대군을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큰형과 둘째형의 눈물겨운 노력은 세상이 다 아는 일 큰형 양녕대군은 그것을 위해 정신병자를 가장하기까지 한 사실, 그래서 세종은 그 재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이나 국가나 단체나 내부 균열이 없으면 외침도 일어날 수 압스다는 사실을 여

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형제들의 단합이 이런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피비린내나는 암투가 계속되는 정권찬탈극이 비일비재 했던 왕조사에 그 반대로 정권이양을 위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만의 자랑거리 일 것이다. 이 단결된 무서운 힘 앞에 종주국인 중국조차도 손을 쓰지못한 것이다.

3. 한글창제와 반포는 세계 개척사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개척의 역사이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한 미국이 그것이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개척사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의 한글에 비기리요. 강대하고 오만한 중국의 압제와 그 문화를 추방하고 자기나라글을 전용케한 경이적인 업적은 일찍이 없었다.

2천년전에 우리나라 글이 생겼다고 하나 그것이 제대로 발전 못한 것은 개척의 위력이 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순조롭게 보급이 된 것은 글자체가 과학적이고 우수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급단계에서 국가적 자원이 병행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한글 보급을 위해 일제 국민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 첫달에 (ㄱ) 안녕하십니까? 하고 매일인사 할 때마다 그 달의 글자를 누구나 먼저 외우고 인사말을 한 것이다. 만약 잊고 글자말을 외우지 않았다면 인사 끝에 글자말을 외우게 했고 글자말을 아주 외우지 않았을 때에는 불기맞는 벌을 받아야 했다. 어려운 진서라는 한문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어려운 한문으로 한글교본을 만들고 한문만으로 한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상상하면 세종의 개혁 활동의 위대성을 짐작하고 남는다. 막상 지금 한문을 아주 없애자고 한다면 큰 혼란이 올것이 뻔한데 하물며 그 시기 한문을 없애고 한글을 쓰게 했으니 그 혁명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4. 사회제도 개혁면으로도 세계제일의 업적이다.

- 1) 예절의 개혁과 토착화 : 이때까지는 중국예법을 그대로 사용했고 민폐가 되고 허례허식에 속하는 부분을 개혁 삭제했다.
- 2) 세제개혁 : 이때까지는 일정한 과세표준이나 제도가 없어 벼슬아치들 마음 내키는 대로 징수했으니 공정성을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혼란의 연속이었다.
- 3) 군사제도개혁 : 변방에 병영설치 관군(정규군)이 없고 거의 사병(사병)이 국방을 담당했으니 정예화를 기할수 없고 군기가 설수도 없었고 조직적이지 못하니까 유사시 출동도 불규칙해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

테 돌아갔고 병무행정을 쇄신했다.

- 4) 향약제도(鄕約) 권장과 지역제도 연구 : 지역단위 단합과 단결된 번영활동 제도 권자. 향약이란 부락단위로 협동단결하여 상부상조를 실천하는 제도인데 갖가지 계(契)가 생겨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생활개선등 신상필벌로 부락의 기강을 세워 나갔다.
- 5) 지리 연구 : 지질과 지역조건 연구(농업, 상업, 어업을 위하여)
- 6) 사회복지관인 흥제원(弘濟院)을 설립. 이사회경의 모든사람을 규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직업과 생계를 보장해 주었다.

5. 다른 나라에서는 발상도 못할 때 각종 학술제도 확립

- 1) 집현전 설치 : 지금의 학술종합연구원 같은 기구를 설치
- 2) 병리학 연구 : 모든 전염병 환자를 격리수용하는 이태원(離泰院)을 설치. 국민 규율과 후생에 총력하였다.
※ 이전에는 죄병이라 하여 시신은 거리에 내다버려 까막까지의 밥이 되게했다. 지금의 이태원은 배이자(梨) 이태원이나 그것은 와전된 것이다.
- 3) 제주도에 나환자촌을 설립 : 세계 구라사 서문에 한국 세종대왕의 구라사업이 그 사업의 시초가 됐다고 적혀있다.
- 4) 세계최초의 기계적 천문학 연구
혼천이라는 천체관측기를 제작해서 별 자리와 분포를 관측하는 등 천체 연구를 시작했다.
- 5) 인류사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개발 : 인쇄술이 가장 발전했다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철제활자보다도 200년 앞선다.
- 6) 세계최초 시계개발 : 해시계는 시각이 표시되는 외에 계절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물시계는 상당히 실용적 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 7) 측우기 개발과 강우량 측정 : 측우기로 강우량을 측정하여 영농과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고 이 측우기의 크기가 지금의 측우기와 똑같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 8) 악보의 기초 음인 모음을 정하고 표준음반인 편경을 제작 600년전 5음의 설립과 표준음반으로 음률을 교육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민족의 우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9) 학술서적 출판보급

농경 기술 서적으로 농경직설록, 지리정설등 여러종류의 서적과 국문 시화전을 개최하는등 기술·학문·생활학문·교양학문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6. 민주적 사회제도화와 행정체계 확립

1) 기생과 석수를 집현전 학사로 추대

이것은 글만 가지고 놀란한 학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학사추대의 반대론이 심했지만 세종은 어째서 글을 아는것만이 학자냐 음률의 깊은 의미를 터득하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자 이상으로 음률을 아는자가 어디 있느냐 그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지식이며 참된 이치를 아는 것이다.

글이라야만 세상물정을 다 알고 글자를 모른다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 취급하는 것은 실로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돌에 대해서 석수 이상으로 아는 자가 없다는 논리를 뒤라서 부인하겠는가.

세종대왕의 창조적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발전 해왔다면 한국은 과학의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나가. 아직도 인문교육이 숭상되고 실업교육은 소외되는 한탄스러운 상황에서 세삼 실기교육을 높이 평가 권장(勸獎)한 세종의 선견지명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왜정때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진 고등교육 제도하에서 유독 조선사람만이 문과를 선호한 까닭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그 누적된 폐단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로 개탄할 일이고 세종조 후에는 국민정신이 헤이 해져 다시 “쟁이”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그대로 일제 식민지 시대로까지 연장돼 오늘의 후진을 부추긴 것이다. 그 사조가 결국 오늘의 타락 풍조로까지 변질돼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지막지한 범죄가 범람하게 된 것이다.

◎ 세종대왕의 덕행을 열거하려면 열거할 사연이 수없이 많은 것인데 다 헤아릴 수 없어 더 열거 못한 것이 안타깝다.

2) 세종의 전통을 이어받을 때만이 세계에 우뚝 솟은 민족이 된다.

우리민족은 세종과 같은 자질의 민족임을 깨닫고 세종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가 됐을 텐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아 버리는 일을 다반사 하고

있으니 5천년 역사에 빈곤과 저주밖에 남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며 우리민족의 고질을 청산하고 세종이나 예수 때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는 세계인류를 위해 노력한다면 머잖아 평화와 풍요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가 이 민족적 고질인 사리사욕·당리당락·중상모략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 잠식돼 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한민족이여, 어서 깨어나 슬기로운 세종대왕의 얼을 살려 민족성을 바로 세우자 온량하고 의로운 민족이여 의의 길로 매진하자.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 썩을 띄워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하늘의 진리 위에 서자.

◎ 한글로 세계의 평화와 풍요의 본보기가 되자.

세종 때부터 한글로 “이태원” 중심의 병리학을 연구했다면 독일 원서가 아닌 세계가 한글 병리원서를 읽어야 했을 것이고 흥제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연구했다면 영국을 능가하는 복지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복지 하면 전 세계가 영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배우러 왔을 것이다. 문화·예술 면으로도 불란서를 추월했을 것이고 세종이 만드신 농사직설을 기초로 하고 3면이 바다이므로 바다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조금만 축산에 눈을 뗐던들 덴마크 사람도 배우러 오게 됐을 것이다. 도자기를 세계적이라 자평하나 실용면으로 미·영국에 훨씬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적인 집현전 제도를 중심으로 학구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민주화는 물론 과학의 나라로 미국을 앞섰을 것인데 모두가 애석할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 마음을 가다듬어 노력한다면 한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는 자각을 하라. 거기에다 통일이 되고 7천만이 단결하여 약진한다면 진정 우리를 앞서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역사 해석의 문제점

여기에 제시된 세종역사는 구전하는 야화일뿐이지 역사로는 취급될 수 없다는 인사가 있는데 기록적 고증만 고증이고 구전은 고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국제적 상황이 기록을 남길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 허위나 낭설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사로 바로잡는 것이 후대의 도리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참뜻의 실천일 것이다.

특히 아름답고 교육의 본이 될 내용이라면 전설이라 할지라도 정사로 세우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도리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현대 역사드라마를 보면 시청자의 관심끄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사실적이 아닌면을 너무 크게 삽입묘사 함으로서 그리 크게 흥스럽지 않은 역사마저 흥스러운 사실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재고 되어한다.

역사드라마는 청소년 가슴에서 민족혼이 용솨음 칠수 있는 장면을 많이 찾고 살려내서 민족혼의 교육적 바탕을 삼도록 힘써야 한다.

李秉泰의

청렴



여주문화위원장 韓萬圭

조선 숙종조 부제학 이병태는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청렴하여 티끌 하나라도 남의것을 탐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였다.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어도 거쳐하는 곳은 참 자리도 편안하지 못할 지경이고 옷은 몸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들리는 소문이 밝고 맑고 높았으며 청렴하고 완고하며 儒風을 일으켰다.

부모를 여윈 이후로는 그의 숙부 감사공에게 나아가 봉양 하였다.

감사공이 황해도에 관찰사였을 당시 병환이 매우 위독하였다. 이공이 부제학이 되자 상소를 올려 진정하며 감사공을 찾아가 살펴보고자 하는 뜻으로 애걸하였다. 임금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 이공은 이웃의 노둔한 말을 빌려타고 노비와 함께 황해도 감영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종로에서 말이죽었는지라 걸어서 감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통과를 저지하는 문지기 때문에 감영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문지기는 그가 헤어진 갓을 쓰고 낡은 벼슬을 입어 거의 걸인의 모습과 같은지라 앞을 막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가 순찰사의 친조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공 또한 스스로 밝혀 말하지 않고 잠시 문밖에서 기다렸다.

하인으로 서울에 있을때 이공을 뵈는 적이 있었던자가 그를 보고는 깜짝놀라 황급히 앞에 나와 절을 올리고 그를 맞아 길을 인도하며 들어갔다. 문에 이르자 감사공이 이공의 모양을 보고 질책하였다.

이것이 무슨꼴이나? 그 꼴은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가 이미 휴가를 청하였으면 장차 부제학에 임할 것이니 역말을 타고 오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거지꼴을 하고 걸어서 내려왔으니 이곳의 백성들이 부제학이 지위를 모두 이같은 정도의 사람인 것으로 알것 아니겠느냐

나? 부끄럽도다. 당장에 물러가라!

공은 감히 문을 들어서지도 못하고 두렵고 위축되어서 冊室로 물러났다. 조금 있으니 안으로부터 한벌의 옷과 망건 갓 玉貫子 紅帶를 내어보내 갈아입고 들어오도록 시켰다. 공은 엄한 질책에 할수없이 명을 받들어 옷을 갈타입으니 위아래가 한가지로 세로워졌다.

그래서 비로서 澄軒에 나아가 절하였다. 그러자 감사가 웃으며 지시 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부제학인줄 알것 같구나. 정신을 가다듬고 이곳 풍물을 잘 살펴보고 가도록 하여라.

이곳은 그곳에서 한 달 남짓 머무르다 돌아갈 것을 아뢰었다. 떠남에 이르러서는 입었던 것을 모두 벗어 별도로 봉하여 두고 올때 입고왔던 의관을 도로 입고 돌아갔다.

이병태(이병태) 1688-1733

문신으로 자는 幼安 호는 東山

본관은 韓山과 숙종41년 (1715)

진사과에 합격 경종3년 (1723)

중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훈문관 부제학을 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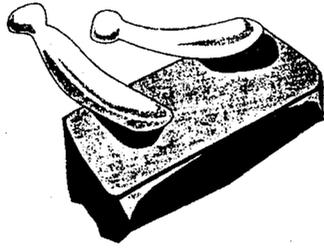
영조조에서는 예조참의 호조참의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고 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며 왕의 노여움을 사고 합천 군수로 좌천되며 선정을 베풀고 사직함

清白史로 錄選됨.

이

백

명조투향



◆ 大老祠(江漢祠)

소재지 : 여주읍 하리 201-1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소유자 : 大老祠 儒林
규모 : 1棟 101坪
재료 : 木造
시대 : 조선 正祖 9년(1785)



대노사(강한사)

宋時烈先生을 모신 사당으로 正祖 9년에 金亮行 等 儒林에 명하여 建立하고 同年에 賜額되었다. 構造는 木造 單層 瓦葺으로 朝鮮朝 後期 建物이다. 현존하는 건물은 本殿 24坪, 구당 57坪, 비각 8坪, 內·外 三門 12坪에 포함 101坪의 規模이다. 처음에는 大老祠라 하였으나 高宗時에 江漢祠라 개칭하였다.

이 祠堂은 다른 사당과는 달리 서쪽을 향하여 孝宗의 寧陵을 바라보고 있다.

宋時烈은 孝宗이 北伐을 꾀하였을 당시 선생에게 北伐計劃을 논의하던 가장 신임하는 신하이며 왕의 大君時節에 스승이었다. 金自點의 무리가 淸에 孝宗이 새 사람들을 등용하여 장차 抗拒하여 한다고 誣告하니 淸은 병력을 國境에 집결하고 使臣을 보내어 추궁하였다. 이에 선생은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孝宗 9年(1658年)에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다음 해 孝宗이 승하하였다. 그 뒤 孝宗의 장례때 大王大妃의 服喪問題로 尹維의 3年說에 맞서 기년설(1年)로 시비가 분분하다가 顯宗이 승하하고 肅宗이 즉위하자 德·態川·長鬚·巨濟·淸風 등지의 귀양살이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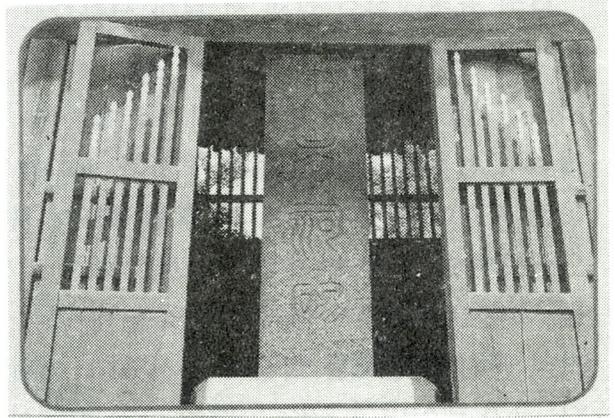
肅宗 15年(1689年)에 왕세자 책봉문제로 상소하였는데, 肅宗의 비위를 거슬러 노여움을 사서 濟州로 유배되었다가 賜死되었다. 그 후 5年만에 復官되었으며 시호는 文正이다.

◆ 大老祠碑

소재지 : 여주읍 하리 201-1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4호
소유자 : 大老祠 儒林
규모 : 높이 3.77m 폭 2.67m 두께 66cm
시대 : 조선

이 碑는 조선 中期의 巨儒인 宋時烈(1607~1689) 先生을 기념하기 위하여 正祖 11년(1787)에 세운 것으로 正祖大王의 親筆碑文이다.

先生의 자는 英甫, 호는 尤庵, 諡號는 文正이고 本貫은 恩津으로 宋申祚의 3남이다. 仁祖 11년(1633)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敬陵參奉이 되었다가 2년 후(1635)에는 봉림대군(孝宗)의 스승을 지내고, 丙子胡亂때 王을 남



대노사비

한산성으로 扈從하였다가 낙향한 후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후 효종이 즉위하여 선생을 부르니 성의를 다하여 섬겼다. 顯宗 9年(1668)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역임하였으나 당쟁으로 많은 과란을 겪었고 流配되기도 하였으며, 끝내는 王世子 冊封문제로 肅宗때 賜藥을 받았다.

5年 후 官爵이 복구되고 文正이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 大老祠碑銘

所在地 : 여주읍 하리 200-1

建立時期 : 조선 1787년

撰 者 : 正祖大王

書 者 : 正祖大王

規 模 : 身高 / 224cm, 幅 / 67cm, 厚 / 66cm

천하에 大敎가 다섯인데 그중에 어진이를 제사 지내주는 것이 제일 첫째가 된다. 어진 사람은 교가 그로 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들에 모닥불을 피우고 穢蕪으로서 그 精에 보답하고 蘋蘩 : (제물)과 藜藿 : (제물)로 그 덕을 보답하고 簠簋 와 籩豆 : (제기)로 그문장에 보답하고 洞屬恍惚함으로 그 공경에 보답하나니 그러한 뒤에라야 거의 신이 흠향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제사란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하니 그 명분이란 안녕치 못해서는 안된다.

주공의 사당은 東洛에 세웠고 武侯(제갈량)의 사당은 반드시 永安 근처에 세웠으니 이것이 명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효종대왕은 천에 한 분의 성군으로 액운을 만나시어 상처입은 백성들을 보전할 것을 생각하시며, 비밀리에 깊은 곳에서 정책을 논의하시었는데 때마침 덕을 함께 하려는 신하가 있어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나 떨어질 수 없듯이 서로 부합되었고 춘추를 잡아서 선후로 상소를 올려 뗏뗏한 교화를 널리 폈으니 곧 선현 宋尤菴이 이에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시였다. 저 孝廟 賓天에 先正께서 홀로 서서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셨으며 왕의 능을 여주로 이장할 때는 일찌기 珠丘에 가까이 하였으며 울면서 松栢을 쳐다보면서 슬피 통곡하여 잊을 수 없이 생각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땅을 가리켜 군신의 관계를 회상케 하시였다. 이제 先正이 죽은지 오늘까지 백 여년이 지났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그가 숨어서 수행한 곳과 본래 근원이 되는 곳엔 일찌기 명사들이 모여들어 더러는 홀로 그를 제사 지내기도 하고 더러는 서원을 만들어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그의 덕행을 사모하고 또 그의 실행을 천하에 밝히니 거의 은혜를 갚는데 유감이 없도다. 이 여주 땅도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이라서 乙卯년간에 사당을 지었더니 조정에서 의논이 험어야 한다고 분분하여 하는 수 없이 험었고 짓지 못하였다. 대체로 祠院을 짓는 것이 본래는 학교를 짓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 院에는 반드시 사당이 따로 있어야 하니 실로 米廩 - (隱나라 때의 학교)에서 제사를 지냈던것에서 유래되었고 黻宗-(은대의 학교)은 그 사람을 제사 지냈으니 이 땅에도 精義가 분명하거늘 더구나 先正이 寧陵에 대하여는 마치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듯 하였으며 무후(제갈양)가 소열황제를 보필하듯 하여 마치 물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았으니 오히려 하루라도 임금결을 떠나지 않고 전력으로 보필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슬프다. 다른 사당도 영왕 곁에 세워졌거늘 驪上에 우암의 사당을 세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왕위에 오른지도 3년이 지난 지금 己亥년에 길을 택하여 영능을 참배하고 여주 淸心樓에 머물면서 여러 선비들이 다 함께 선정의 사당을 지을 것을 주청하므로 내 즐겨듣고 허락하였더니 그후 7년 乙巳에 사당이 비로소 지어지고 이에 사당에 영을 편안히 모시고 그 이름을 大老祠라 하였다. 그후 3년이 지나서 先正이 태어난 세번째 회갑일에 비석을 그 뜰에 세우고 그를 제사지내는 의를 말하였다. 사당은 고을 동헌에서 수백보도 못되는 곳에 있고 청심루 서쪽에 있으며 영릉에서 2리쯤 떨어진 곳에 있으니 학복산이 그뒤에 옹호해주고 우뚝 우뚝 솟은 암벽이 그뒤를 억누르고 있으며 여강이 못처럼 둘러있어 도도히 흐르고 동남에 霞峰이 있고 앞에는 물이 공손하게 흐르고 있으며 북으로는 연탄이 흐르고 용문이 둘러 싸여서 아주 절승 가경을 이루고 있으니 기다림이 있는듯 더 더욱 아름답다. 비록 그러나 무릇 우리들이 선정의 사당에서

선정의 학문을 강론하는자 진실로 선정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월성신도 洛閩의 통치를 굽어보고 있어 먼저 읊하고 물러나서는 활달한 모습을 하고 마음도 활짝 폈다.

봄에는 시를 짓고 겨울엔 예를 드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마지막에 급하게 하면 어찌 선정의 교를 체득하여 제사를 지내는 뜻이 거의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어진이가 교화로 삼는 것이 그 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마침내 비명을 쓰노라.

영세의 출현은 반드시 성군이 있어야 한다. 朋良이 일어남을 즐거워하고 그는 자고로 한집에서 태어난다. 우리 영왕을 돕고 우리 종묘를 도왔도다. 마치 용이 구름을 일으키듯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듯 성대하게 빛나도다. 신비함은 돌아보고 만사가 울적하기만 하다. 무엇으로 밝히리오. 춘추 수십매로 밝히리라. 훌륭한 따를길 없어 표범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시었다. 노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여강을 노저어 갔네 창오에서 바라보니 빛나고 빛남이 매우 가깝도다. 산도 울창하여지니 그 누가 그를 생각하리 그의 위촉하심이 헛되지 않아 모든 선비를 교화시킨다. 그의 행적이 그친곳에 특별히 사당을 지었도다. 맑은 마음은 저 달과 같고 그 덕용 또한 비슷하여라. 학문은 자양과 부합되고 그 파벌은 울곡의 파로다. 곧은 마음으로 살라는 훈계에 그의 제자들이 그 혜택 입었도다. 저 많은 군자들이 어찌 그를 축하하지 않으리오 한 몸이 되어 그를 제사지내 백대를 길이 끊이지 말지어다. 숙계에 밝고 화융하니 먼곳 가까운 곳에 향기로워라 문득 내 감격하여 일찌기 典訓을 입었노라 우뚝한 곳 좋은 돌에 글을 새겨 길이 보전하리라.

황명 승정 기원후 三 정미(정조 11년, 1787) 겨울 11월에 비석을 세움.

여

백

大老祠院誌發刊 計劃書

1. 目的 : 大老祠는 京畿道 驪州邑 下里에 所在한 地方有形文化財 第84號로서 朝鮮朝 기호 유학을 代表하는 위대한 哲學者요 政治家였던 尤菴 宋時烈 先生을 配享한 祠宇이다. 西紀 1731年 (英朝 7年)에 創建되었으며 1785년 (正朝 9年)에 大老祠에 賜額된 바 있다.

道德的 危機와 함께 傳統倫理의 회복이 切實히 要請되는 現實的 狀況에서 傳統文化의 現代的 發掘 再整備 作業은 時代的 要請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大老祠의 歷史的 由來와 尤菴의 生涯와 思想을 現代的 으로 再照明하여 <大老祠院誌>를 發刊함으로써 傳統文化의 暢達과 傳統倫理의 再建에 寄與하고자 한다.

2. 誌 名 : 大老祠院誌

3. 規 格 : 4.6版 洋裝

4. 총 면 수 : 800면(본문 750면 화보 기타 50면)

5. 집필 원고분량 : 약 4,500枚

6. 총소요예산 : 8,000만원(원고료 3,750만원. 인쇄비 2,500만원)

7. 원 고 료 : 200자 원고지 1枚當 6,000원

8. 번 역 료 : 국역 600만원

9. 집필위원

趙鍾業(충남대) 趙南國(강원대) 崔權默(충남대) 鄭炳連(전남대)

柳七魯(한남대) 黃義東(충남대) 韓基範(한남대) 崔英辰(성균관대)

宋寅昌(대전대) 郭信煥(송실대) 李達勳(대전대) 李在權(청주대)

金文俊(대전대) 金旻洙(향토사학자)

10. 세부 발간 계획

| | |
|--|--|
| <p>발간사 축간사 화 보 (전경, 묘정비각, 묘정비, 내삼문, 추양재, 영정, 유물, 유품 등)</p> <p>범 례 목 차</p> <p>송시열 선생 一. 머리말 二. 家計 및 生涯 (1) 時代背景 (2) 家 計 (3) 出 生 (4) 학문연원 (5) 生 涯 (6) 孝宗과 北伐計劃 (7) 禮說論爭 (8) 老論과 小論의 分裂 三. 宋時烈 思想의 基本 性格(直哲學과 聯關) 四. 理氣說의 特徵 五. 心性說의 倫理構造 六. 經世觀 七. 스승 金長生 八. 스승 金 集 九. 同門 宋浚吉 十. 其 他 十一. 맺는말</p> | <p>조선시대 문묘종사의 유래 송시열 송준길의 문묘종사 대성전 위패봉안도 춘추향사의절 흘 기 축 문 진 설 도 관리관례 재산상황 대로사 유회 임 원 록 중 수 기 제 영 건 물 봉 안 문 사액제문 상 량 문 문묘 서원배향록 영 인 본 송자대전 저 서 편집후기 중요문헌 문 인 록 대로사의 창건배경과 연혁 한국 유학과 기호학과 돈암서원과 우암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p> |
|--|--|

宋時烈 思想의 基本性格
 理氣說의 特徵
 心性說 論理 構造
 尤菴의 生涯와 인걸
 尤菴의 儒學史의 位置
 尤菴의 性理思想
 尤菴의 禮學思想 涯
 尤菴의 義理思想
 尤菴의 經學思想
 尤菴의 經世思想
 尤菴의 文學思想
 문묘종사의 유래와 尤菴의 문묘종사
 대성전 위패봉안 위치도
 春秋享祀儀節(홀기, 축문, 진설도)
 管理 冠禮(冠禮, 規約, 서순)
 재산상황 (토지현황, 특수물품 및
 제용기구, 기타, 비품,
 중요문헌)
 건물(대로사 위치도, 사우, 비각,
 삼문, 추양재)
 大老祠 유희
 임원록(역대원장, 역대임원, 회원명부)
 부록 1. 대로사 중수기
 2. 어제어필 대로사 묘정비명
 3. 제영
 4. 尤菴先生 봉안문
 5. 사액 제문
 6. 상량문

7. 문묘서 배향록
 8. 문인록
 9. 송자대전 발취(번역문)
 10. 우암연구 목록
 11. 편집 후기

- 目 次 -

1. 尤菴先生 影幀
 2. 尤菴先生 遺墨
 3. 畫報(칼라)
 大老祠全景
 祠 宇
 廟 庭 碑 閣
 秋 陽 齋
 教 旨
 4. 大老祠全圖
 5. 大老祠位置圖
 6. 御製 碑文
 (原文)
 (訣文)
 7. 發刊辭
 8. 祝刊辭
 (文化部長官, 道知事,
 郡守, 成均館長)
 9. 凡 例
 10. 大老祠創建背景
 11. 大老祠建置沿革
 12. 尤菴宋時烈先生

범례

- (1) 머리말
- (2) 家計 및 生涯
 - ① 時代背景
 - ② 家計
 - ③ 出生
 - ④ 學文연원
 - ⑤ 生涯
 - ⑥ 孝宗과 北伐計劃
 - ⑦ 禮說論爭
 - ⑧ 老論과 小論의 分裂
- (3) 宋時烈 思想의 基本
性格
- (4) 理氣說의 特徵
- (5) 心性說의 倫理構造
- (6) 맺는말
13. 朝鮮時代 門廟從祀由來
14. 宋時烈, 宋浚吉의 文廟從祀
15. 朝鮮時代 門廟從祀由來
宋時烈, 宋浚吉의 文廟從祀
16. 大成殿先聖先賢 位牌
奉安位置圖
17. 春秋享祀儀節
 - (1) 笏記(原文, 譯門)
 - (2) 祝文
 - (3) 陣設圖(原文, 譯門)
18. 管理慣例
 - (1) 慣例
 - (2) 規約
 - (3) 書順
 - ① 望牒
 - ② 案内文
 - ③ 皮對
19. 財産狀況
 - (1) 土地現況
 - (2) 特殊物品 및 祭用器具
 - (3) 其他備品
 - (4) 重要文獻
20. 大老祠儒會
21. 任員錄
 - (1) 歷代院長
 - (2) 歷代任員
22. 大老祠重修記
23. 題詠
24. 建物
 - (1) 祀宇
 - (2) 碑閣
 - (3) 三門
 - (4) 秋陽齋
25. 尤菴先生 奉安文
26. 賜額祭文
27. 上樑文
28. 文廟書記享錄

11. 소요예산(개략잠정예산)

| 항 목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원 고 료 | 40,000,000 | 4,000매 × 1만원 = 4,000만원 |
| 인 쇄 비 | 25,000,000 | 4.6배판(양장) 1,000부 |
| 회 의 비 | 1,500,000 | 5회 × 30만원 = 150만원 |
| 편 집 교 정 비 | 3,000,000 | 5명 × 10개월 × 6만원 = 300만원 |
| 공 공 요 금 | 1,000,000 | 10개월 × 10만원 = 100만원 |
| 자 료 수 집 비 | 7,500,000 | 15명 × 50만원 = 750만원 |
| 여 비 | 1,000,000 | 10개월 × 10만원 = 100만원 |
| 소 모 품 비 | 500,000 | 10개월 × 5만원 = 50만원 |
| 잡 비 | 500,000 | |
| 계 | 80,000,000 | |

대로서 예절교육관 신축공사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대로사 예절교육관 신축공사

2. 신청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 지정별 : 지방 유형 제20호

4. 신청인

○ 성 명 : 대로사 원장 김 동 현

○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5. 사업목적

○ 대로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서 예를 중시하는 옛 선조들의 문화의 유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에 예절교육관을 신축하여 전통서원으로 사세를 유지하고 전통혼례장 및 유물전시관과 도서실로 활용코저 하여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6. 사업내용

○ 예절 교육관 신축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 층 수 : 지하1층, 지상 3층

- 양 식 : 초익공계, 팔작지붕

- 단 청 : 미색가칠

7. 건물계획

○ 면적 개요

단위 : m²(평)

| 층 수 | 면 적 | 용 도 | 비 고 |
|-----|-------------------|------------------|-----|
| 지하층 | 318.06 (96.38) | 다용도실 | |
| 1 층 | 318.08 (96.38) | 근린 생활 시설 | |
| 2 층 | 318.06 (96.38) | 강 당 | |
| 3 층 | 318.06 (96.38) | 사무실 및 도서실, 유물전시실 | |
| 계 | 1,272.24 (385.5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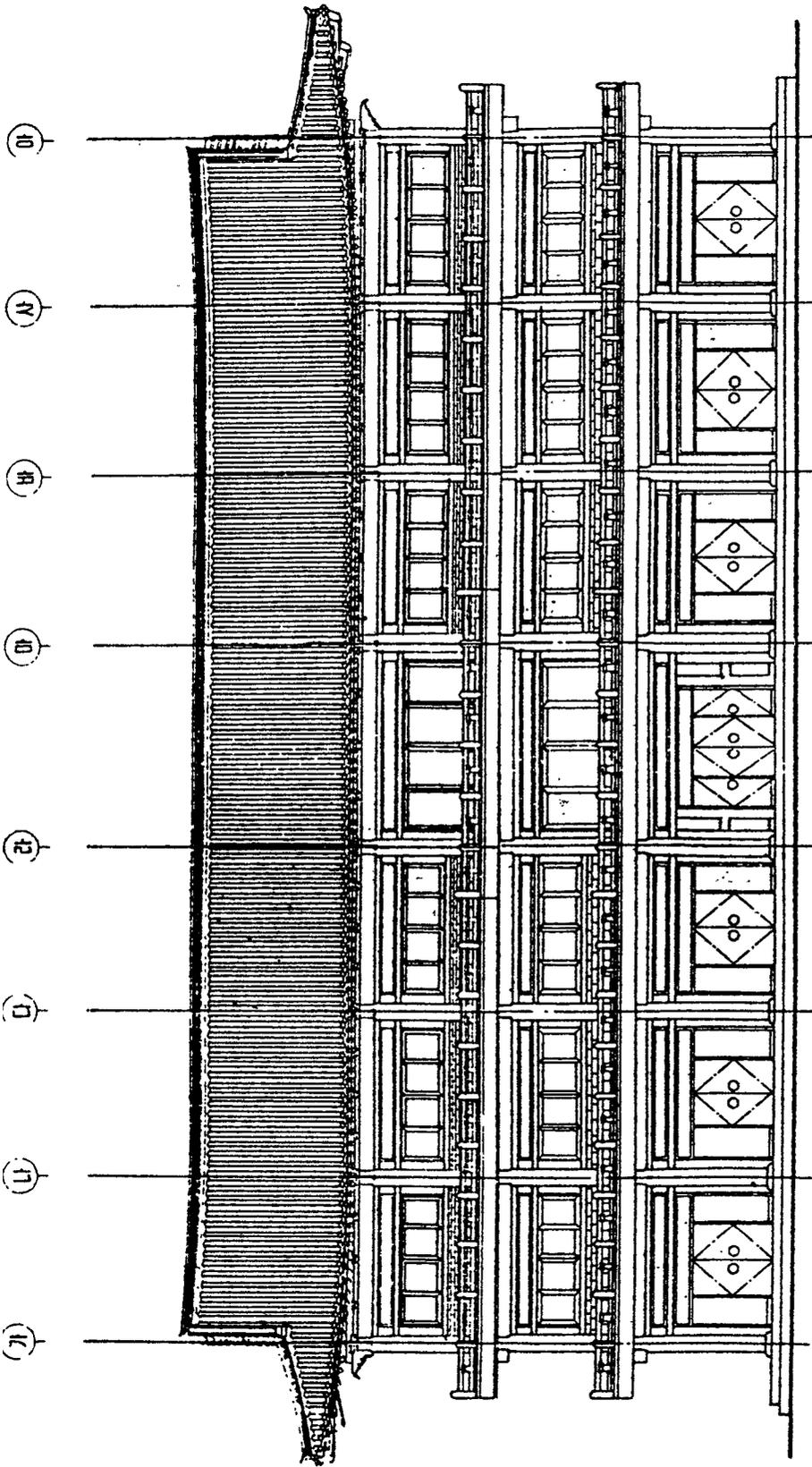
8. 예상 공사비(95년도 기준) : 2,304,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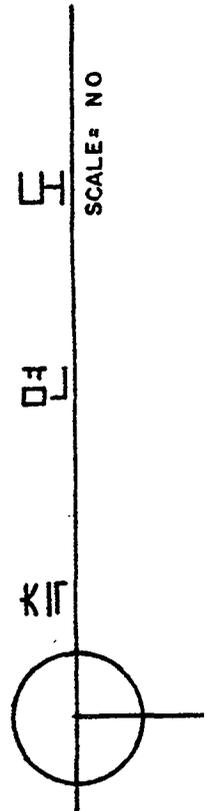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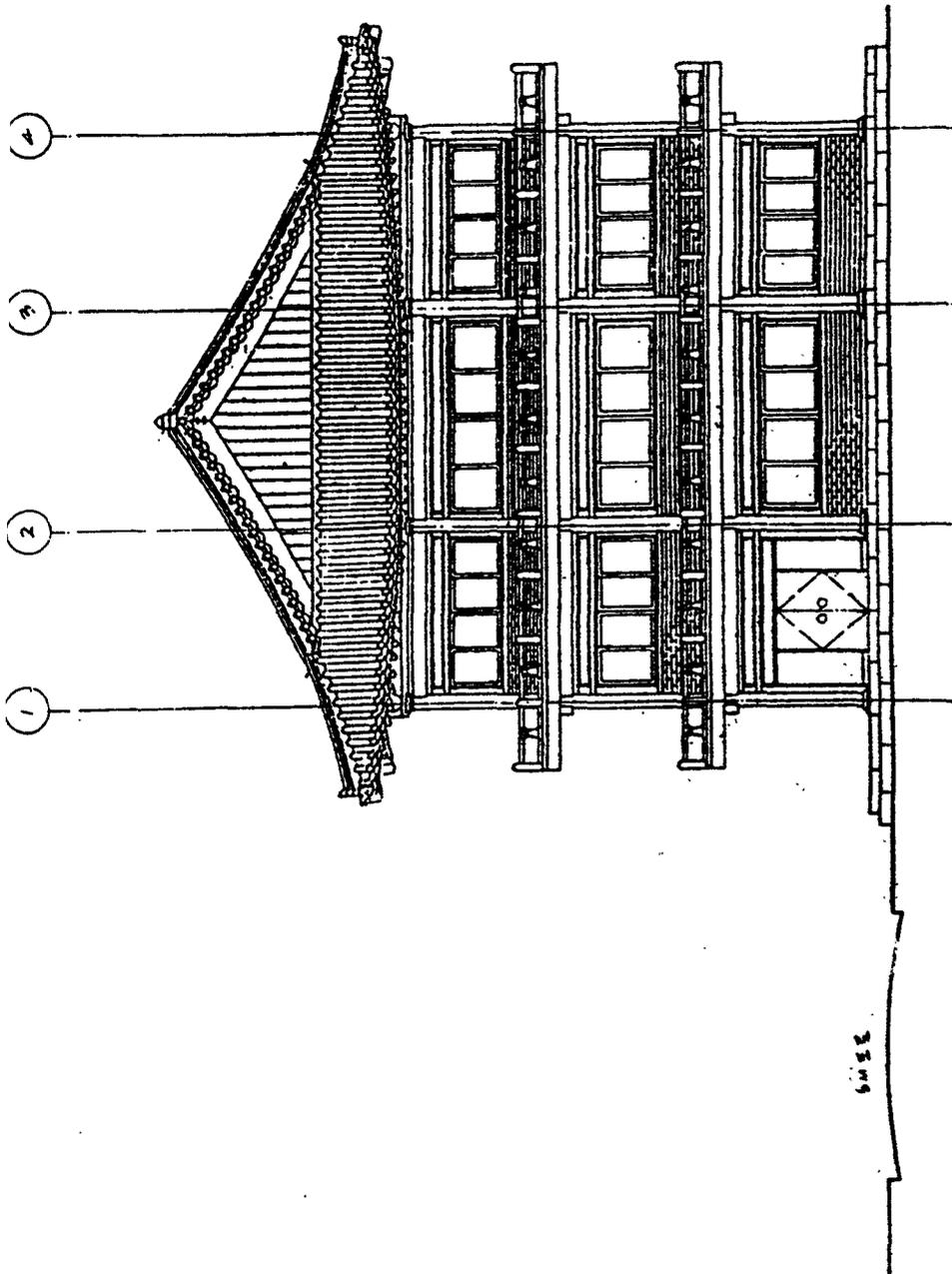
| 층 수 | 면적(평) | 예상평당 공사비 | 예상 공사비 | 비 고 |
|-----|-------|----------|----------------|-----|
| 지하층 | 96 | 350만원 | 336,000,000원 | |
| 1 층 | 96 | 450만원 | 432,000,000원 | |
| 2 층 | 96 | 450만원 | 432,000,000원 | |
| 3 층 | 96 | 1,150만원 | 1,104,000,000원 | |
| 계 | | 600만원 | 2,304,000,000원 | |

대로사 예절교육관 신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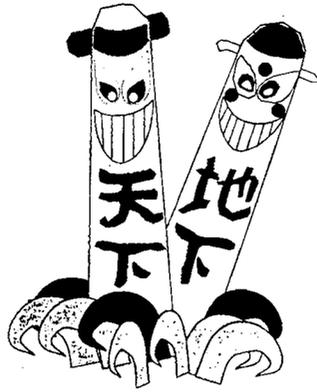
【공사 개요서】

| | | | | | | |
|-----|-----------------------------|----------|-----------|---------|----------------|---------------|
| 공사명 | 대로사 예절교육관 신축계획 | | | | | |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 | |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 | | | |
| 양식 | 초의공계, 팔작지붕 | | | | | |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 | | | |
| 면적 | 층수 | 면적 | 적 | 예상평당공사비 | 예상공사비 | 용도 |
| | 지하층 | 318.06 | (96.38평) | 350만원 | 336,000,000원 | 다용도실 |
| | 1층 | 318.06 | (96.38평) | 450만원 | 432,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
| | 2층 | 318.06 | (96.38평) | 450만원 | 432,000,000원 | 강당 |
| | 3층 | 318.06 | (96.38평) | 1,150만원 | 1,104,000,000원 | 사무실 도서실 및 전시관 |
| | 계 | 1,272.24 | (385.52평) | 6000만원 | 2,304,000,000원 | |
| 지방 | 한식기와 잇기 (중와B) | | | | | |
| 외벽 | 전벽돌 치장쌓기 | | | | | |
| 창호 | 알미늄 샷시 / 페어그라스위 한식 완자 푸니 코팅 | | | | | |
| 단청 | 미색가칠 | | | | | |





유적지 탐방



서희장군묘 (徐熙將軍墓)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경기도기념물 제36호
- 지정일 : 1977년 10월 13일
- 시대 : 고려 998년 (목종 1)
- 소재지 : 여주군 산북면 후리 산 53-1



▲ 서희장군 묘

▷ 설명자료

고려시대에 거란의 80만 대군을 담판으로 유혈의 전투없이 물러가게 한 서희(942~998)를 모신 유택이다.

봉분은 부인 묘와 쌍문을 이루며, 장대석(長臺石, 섬돌 층계를 놓거나 축대를 쌓는데 쓰기 위하여 길게 다듬 만든 돌)으로 2단의 호석(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둘러쌓는 돌)을 두른 장방형이다.

쌍분의 중앙 전면에는 묘비 1기가 있고, 쌍분 앞에는 상석(제사지낸 때 제수<祭需>를 올려 놓을 수 있게 돌로 만들어 놓은 것)과 장명등(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세운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정 1품 재상의 묘에만 세울 수 있었다)이 1기씩 놓여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을 각 1쌍씩 배치하였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계체석(무덤 앞의 층계에 넣는, 길쭉하게 다듬은 돌)을 이용한 3단정제(三段庭制)이며 고려시대 묘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서희는 960년(광종 11) 18세에 갑과(조선시대때, 성적에 따라 갑·을·병으로 분류하던 첫째 등급)로 과거에 급제한 뒤 내의시랑을 거쳐 983년(성종 2)에는 군정의 책임을 맡은 병관어사가 되었다.

이후 태보(고려시대 임금의 고문으로 정1품의 명예직인 삼사의 세번째 벼슬). 내사령의 최고직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정치적 활동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나 외교적으로 보다 큰 업적을 올렸다.

고려의 적극적인 북진정책과 친송외교에 불안을 느낀 거란이 993년 소손녕을 총수로 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다. 적은 북쪽 경계의 봉산군을 격파하고 계속 남쪽을 위협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항복하자는 견해와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화해하자는 할지론이 우세하였다. 이에 서희는 단신으로 적진으로 가서 소손녕과 담판으로 유혈의 전투없이 적의 80만 대군을 물러가게 했다. 그리하여 압록강 동쪽의 여진이 접거한 280리 땅, 즉 지금의 평북일대를 보존하는 공을 세웠다.

파사성(婆娑城)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사적 제251호
- 지정일 : 1977년 7월 21일
- 시대 : 삼국시대
- 소재지 :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 8-10
- 규모 : 주위 1,800m (1,100보)
- 재료 : 석축



▲ 파사성 성벽

▷ 설명자료

해발 250m 정도의 파사성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성한 파사성은 축성한 파사성은 성벽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둘레는 1,800m 정도이며 여장(餘牆, 성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은 전부 허물어져 형태가 남은 것이 거의 없고 남은 성벽중 최고 높은 곳은 6.25m나 낮은 곳은 1.4m 되는 곳도 있다.

한편 천서리를 면한 동문지(東門址), 금사면 이포리를 면한 남문지(南門址)에는 문앵(門櫻)을 세웠던 고주형초석(高柱形礎石) 2기와 평주초석(平柱礎石)등이 남았고 동문지에는 웅성(모양이 반으로 쪼갠 독과 같아서 웅성이라 한다. 웅성은 성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이중성벽을 말한다. 적이 성문에 접근하여 성문을 뚫으려 할 때 문루와 웅성에서 사방으로 협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웅성은 평면이 사각형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웅성이 시대가 앞선 것으로 삼국시대의 성에서만 볼 수 있다.)문지(甕城門址)가 남아 있다. 한강에 연하여 있어 성 일부는 강언덕에 돌출된 자리를 잡아 남한강의 상하류를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축성시대가 삼국시대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는 것 같으나 신라가 파사왕 2년에 쌓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파사왕 2년 당시에는 이곳이 신라 영역에 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자사성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자사국의 옛 터전으로 구전(口傳)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선조 25년(1592년)에 임진란이 일어났을 때 유성룡의 발의에 따라 승군총익인 의암(義巖)이 승군을 동원하여 쌓은 둘레 1,100보의 성첩(성첩)을 중수한 기록이 있다.

명성황후생가(明成皇后生家)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46호
- 지정일 : 1973년 7월 10일
- 시대 : 조선 1687년(숙종 13)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2
- 규모 : 잔존건물 30평
- 재료 : 목조와즙(木造瓦葺)



▲ 명성황후 생가

▷ 설명자료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황후로 개화기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을미사변으로 일인에 의해 시해되어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던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18세까지 살던 집이다.

1687년(숙종 13)에 왕의 장인 민유중의 묘막(墓幕)으로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로서 남아 있는 것은 안채 뿐이다.

최근에는 1975년과 1976년에 안채가 중수되었고 1996년에는 안채가 수리되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복원됨으로써 면모가 일신되었다.

넓은 바깥마당에 면하여 솟을대문(一大門: 자붕이 좌우간 또는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고주대문<高柱大門>, 고설주대문<高設柱大門>)을 가진 一자형 행랑채가 서고 그 뒤에 중문과 사랑이 붙은 ㄱ자형 문간채와 ㄱ자형 안채가 안마당을 둘러싸서 튼 ㄹ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옆으로 一자형 별당채가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는 14칸의 규모의 민도리집(한식 나무 구조에서 단면이 사각형인 도리. 주로 격조가 떨어지는 건물에 쓰인다)인데 8칸 규모의 팔작지붕(기와지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비를 지닌 지붕. 좌우 측면에 합각(合闕)이 있는 4면 구성의 지붕이다. 현존하는 중요 법당의 대부분은 팔작기와 지붕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본채 한쪽에 6칸 규모의 맞배지붕(건물의 측면에서도 지붕면이 용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어, 측면에 삼각형의 벽이 생기는 지붕) 날개채가 붙어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본채는 전면에 퇴칸(退間, 집채의 원간살 밖에 판 기둥을 세워 붙여지는 간살)이 있는 오랑구조인데 2칸 안방과 4칸 대청, 1칸 반 온돌방과 3칸 부엌, 1칸 반 광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집은 재목도 그리 크지 않고 간살(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간격)도 넓지 않으나 부재의 형태와 결구법 등에서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장을 빚낸 인물



◆ 洪秉箕 (1869.11.5 - 1949. 1.26)

洪秉箕(號 : 仁菴)는 민족대표 33인중의 한 사람으로 여주 출신이며, 天道敎人이다. 어려서 한학에 능통했으며 동학에 입교해서는 교리를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동학혁명 때에는 간악한 탐관오리와 포악한 토반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다. 그후 천도교 道師로 교세확장과 구국운동을 계속했으며 국권침탈 후에는 조국광복과 항일운동에 더욱 전념하였다.

조국의 독립운동 기운이 점차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을 배관하기 위하여 상경했다가 孫秉熙, 權東鎭, 吳世昌 등의 천도교 대표들과 만나, 독립만세 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 듣고 이에 찬성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결심하였다.

27일 齋洞 金相奎의 집에서 吳世昌, 崔麟, 林禮煥, 權秉憲, 羅人協, 金完圭, 羅龍煥, 洪基兆, 朴準承, 梁漢默 등의 동지와 다시 崔南善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대표로서 서명날인 하였다. 이튿날인 28일 밤 재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仁寺洞의 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滿洲로 망명, 1926년 吉林省에서 高麗革命黨 창당에 참여, 고문으로 추대되었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新義州 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曹成煥

1875년(고종12)~1948년 독립운동가. 일명 焜, 호는 晴菴, 본관은 昌寧,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출신. 26세때 武官學校에 입학하였으나 부패한 軍部를 숙청하려다 발각,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중 命勅으로 3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

후 參尉에 임관되었으나 사직하고 1907년(융희1) 安昌浩, 李甲 등과 함께 新民會를 조직, 抗日救國運動에 투신했다. 한일합방 후 大倭敎에 入敎하고 중국에 망명, 北京에서 중국 혁명가 陣其美와 韓中共同 戰線을 펴 항일투쟁을 벌일 것에 합의했다. 1912년 일본총리 대신 桂太郎의 만주 방문을 계기로 암살하려다 실패, 巨濟島에 유배되었다가 1년 만에 석방되어 만주로 망명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軍務次長을 지내고 다시 만주에 가서 徐一, 桂和 등과 北路軍政書를 조직, 軍事部長에 취임, 靑山里 싸움 후에 독립운동단체가 大韓獨立軍團으로 통합될때 外交部長이 되고, 이어 新民府를 조직, 외교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뒤 韓國獨立黨 감찰위원장을 거쳐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軍務總長으로 8년간 재직하고,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임시정부의 軍事特派員으로 西安에 파견되어 중국정부와 협의, 光復軍 창설의 기초를 닦았다. 다시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최고통수부 辦公處長으로 있다가 해방으로 귀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 성균관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復章이 수여되었다. 著書《주춧돌》,《大倭敎人과 獨立運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獨立有功者功勳錄 (19*86. 11.1 國家報勳處)]

◆ 崔永武(1885. 5. 11-1952. 1. 10)

경기도 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姜斗永, 元弼善, 李元其, 金學洙 등과 함께 북내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호응하지 않아, 서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함에 분개한 李元其 등이 驪州 장날인 4월 5일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4월 1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하여 격문과 경고장,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3일 이웃동리인 峴巖里 주민 5,6명이 와서 북내면장인 曹錫永이 일제에 잡혀갔으나 구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북내면 사무소로 갔으나, 면장이 석방된 후였으므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姜永斗, 姜萬吉, 崔明用 등과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이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그는 長巖里, 德山里, 外龍里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당우리 拱北學校에 8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五鶴里까지 행진하는 등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다

가 체포되었다.

이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有功者 功勳錄(1986. 9.13-1968. 11.1 國家報勳處)]

◆ 李元其(1900. 9. 13-1968. 4. 30)

경기도 驪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崔永武, 姜斗永, 元弼喜 등과 함께 北內面 堂里的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립만세 시위에 여주군이 호응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고 4월1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하여, 4월 5일 여주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할테니 모두 참여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다시 元弼喜, 李元文, 趙經鎬와 함께 이원문의 집에서 만나, 독립선언서를 참고로 42매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이날 인근지역에 배부하였다.

4월 2일 자기의 집에서 姜永祚, 金學洙, 李元文과 다시 만나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4월 3일 長巖里 이장 元道喜의 집에서 金學洙, 元彊喜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崔永武, 姜斗永, 姜萬吉, 崔明用 등이 이웃동리인 峴巖里 주민들에게 빨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도록 독촉을 받고, 거사일자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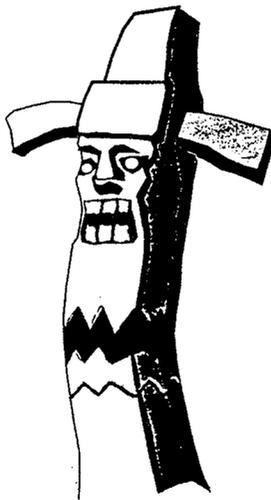
이에 그도 당우리 拱北學校로 가서 8백여 명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五鶴里까지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하는 등,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해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有功者 功勳錄(1986. 11.1 國家報勳處)]

내고장의 전설



◆ 剛金山의 傳說

옛부터 驪江沿岸은 先史文化 遺蹟이 宛然하여 五大文化圈으로 손꼽힌다. 이 地域의 古地名인 占梁面과 近東面이 이 合名된 占東面에 개만한 금이 묻혀 있어 속칭 개금山이라고 하는 剛金山이 있다. 바로 이 고장 인근의 山勢는 高麗의 敬順王后의 朝鮮朝 世宗大王 어머니 元敬王后 驪興閔氏를 비롯해 女傑閔妃 등을 배출케 한 명산이 즐비한 樂土이다. 山川은 剛金山 南쪽 멀리 백족산이 있고 北으로는 千年을 默座하는 姿態의 소무산이 있다. 거울처럼 흐르는 驪江가에 山峯은 물그림자 지고 東으로 鳥山 峻령이 드높아 壯大하며 그 기슭으로 넘쳐 흐르는 淸美川이 여울지니 가히 절승이다.

턱에 와 닿는듯한 神通山 지내穴을 따라 北西쪽으로 오르면 마치 剛金山의 金脈을 따라 동리 이름들이 金谷里, 金塘里, 安金里 등 金字로 이어진다. 또한 軍士가 보호라도 하듯 산 이름들이 大포山, 鐵甲山으로 연계되며 이곳이 귀중한 지역이라는 뜻에서 변방의 마을 이름조차 下貴里, 楊貴里 등으로 불려진다. 실로 名山의 흐름이 분명하여 神通山이 剛金山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剛金山은 예종께서 英陵을 遷陵할 때도 驪興의 城山이 龍仁의 金峯山과 함께 吉凶을 전달한 山이기도 한다.

옛날 唐나라 皇帝가 어느날 아침 세수를 하려다가 奇異한 現場을 보았다. 새수물을 떠 놓은 대야에서 밝은 광채가 일어나며 개 형상의 금이 일렁대는 물속에 비치는 것이었다. 이를 본 皇帝는 臣下를 불러 이런 奇異한 現場에 對하여 알라보라고 명했다. 臣下들은 여러모로 알아보고 오랜 研究와 숙의 끝에 皇帝께 아뢰었다. 신들은 알 길이 없사와 유명한 占術家에게 알아보니 「東方의 新羅에 金字 들어가는 山 양기슭 계곡에서 發源한 물이 福字가 들어가는 河川으로 흘러 金字가 들어가는 내를 따라 金字가 들어가는 山을 찾으면 그 산에 개만한 금덩이가 있사운데 그 형상이 비친것이며 東方의 新羅가 날로 强盛해지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러한 珍說을 듣고 난 皇帝는 지금 당장 東方新羅로가서 그 금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오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唐나라에서 新羅를 가려면 高句麗를 지나야 되는데 高句麗와 唐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高句麗 사람을 닮고 고구려말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 臣下와 함께 보내기로 하였다. 명을 받은 臣下와 일행들은 千辛萬苦끝에 險峻한 산길과 물을 건너 여러달 지나 비로서 거서(新羅때 용인땅)에 다달았다. 산세가 웅대하고 그윽한 어느 산 아래의 너른 들에 도착하여 마침 들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던 농부에게 길을 묻게 되었다. 金字가 들어가는 山에서 물이 兩水로 흐르고 福字가 들어가는 河川으로 흐르는 發源地의 山이 어디냐고 물었다. 농부는 물끄러미 드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使臣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알았다는 듯이 앞산을 손으로 가르키며 말했다.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산이 저 산이요, 저 산이 金字가 들어가는 金泊山이라든 山이요」하며, 연신 손짓으로 山을 가리킨다. 金泊山은 龍仁郡 내사면과 廣州郡 도척면에 걸쳐 있는데 이 산에서 發源한 물이 마장면 단거리 들녘에서 양수가 합수되어 福河川을 이룬다.

農夫가 대체 어디서들 오셨으며 오디를 찾아가는 중이냐고 묻자 사신들은 머뭇거리며 지나온 사연을 모두 이야기 하며 좀 도와 달라고 하였다.

밭머리에 서 있던 농부가 나무 그늘로 들어앉아 눈을 지긋이 감고 金水發水 福河川 河口金砂 剛金山 하고 읊조린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使臣들이 물으니 개 만한 금이 있다는 驪興府 占梁面 剛金山을 찾아가시는 길이군요 한다.

사신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 물었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눈이 번쩍 빛나며 바짝 다가앉아 길을 일러 달라고 애걸했다. 그들의 성화에 못이기는 척하며 농부는 난색을 띤 표정으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멀어 당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 훨씬 더 멀으니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듣고있던 사신들은 어인 일로 그리 아득하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그것을 찾아가자면 제일역을 지나고 五千驛(午川의 옛 地名이 呑川)을 거쳐 億萬里 고개를 넘어 二千읍을 지나서 九萬里들을 건너서 億億다리를 넘으면 황학한 南下에 剛金山이 있다」고 일러 주었다. 唐나라 使臣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반신반의 하여 新羅가 작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고 넓으냐고 하며 가는데까지 간다고 한다. 농부와 헤어져 한참을 가노라니 첫번째 第一驛이 나선다. 과연 농부의 말대로 驛은 틀림없고 멀리 앞을 내다보니 첩첩산만이 아득할 뿐이다. 使臣들은 어찌는 수 없이 더 가다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고 되돌아가 처자식들이나 보고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여 되돌아갔다. 바로 그곳을 작별하고 간 곳이라 하여 오늘까지 작별리라 부른다.

농부가 말한 五千驛은 午川으로 옛 지명이 呑川인 것을 五千이라 말했고 이천읍을 지나야 한다는 말은 현재의 利川읍을 二千이라 한 것이며 九萬里들을 利川과 驪州 경계에 북하천변들의 이름이며 億億다리는 흥천면에 다리이름이니 사신들은 농부의 말에 속은 것이다.

그 때 길을 일러준 농부는 다름아닌 신통산 신통사의 高僧으로 剛金山을 보호하기 위하여 農夫로 변신하였던 것이라고 여주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剛金山은 世宗大王

의 陵을 천장코자 상지관과 신하들이 답사한 명산인데 오늘날까지 山 어딘가에 개만한 금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 까막산의 전설

북성산 기슭을 따라 들녘을 끼고 몇개의 산굽이를 돌아들면 까막산이 봉니다. 그 옆으로 양화천이 흐르는데 그 흐름이 다섯 갈래다. 대포산에서 발원한 안금천, 철갑산 양귀리에서 흘러드는 한발천, 이천 돌박지산에서 근원하는 대신천 등 다섯줄기가 마치 손가락과 같은 형세여서 옛부터 이 가남면 오산리는 손으로 떠받들 만한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원래 가남면 五山은 烏山이라 했는데 大砲山, 神通山, 剛金山으로 이어진 梧甲山の 줄기이다. 이 오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馬來里가 있다. 사실 까막산의 전설은 마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장씨성을 가진 며느리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 하였지만 말을 못하는 병어리에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 며느리는 열심히 지성을 드려 아이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날밤 꿈에 신선이 나타나 梧甲山에 백일기도를 드리면 귀인을 낳을 것이라고 하며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며느리는 곧 오갑산으로 들어가 지성으로 백일가도를 하였다. 백일이 거의 다 되던 어느날 그녀의 꿈에 마귀할멈과 삼신할머니가 다투는 광경이 나타났다.

원래 오갑산은 삼신할머니의 소유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마귀할멈이 나타나 삼신할머니가 좋은 일을 하면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마귀할멈이 삼신할머니에게 말하기를 “오갑산을 이제는 나 혼자 차지하고 싶으니 너는 이 산의 일부를 떼어 가져라 그대신 이 앞치마를 주겠다” 그 앞치마는 흙이나 바위 등을 그곳에 담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날라다 주는 신비한



▲ 가남면 오산리 까막산

치마였다. 또한 산을 잘 만들면 그 근처 동네에서 열심히 지성드리는 아낙에게 장수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삼신할머니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머리에 무엇을 자꾸 바르는 시늉만 하였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과연 논 가운데 우뚝한 산이 생겨 있었다. 산이 채 완성되기 전에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 처음부터 아이는 범상치 않아 낳은지 몇달 안되어 걷고 말하였다. 집에서는 크게 기뻐하였는데 어느날 집안식구가 모두 들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그 아이는 돌로 눌린듯한 상처를 온몸에 받고 죽어 있었다. 그 이유 인즉 삼신할머니는 산의 흙을 다 나른 후 그곳에 닭 두쌍을 만들어 놓고 바위알을 날라놓으면 그 어린아이는 장사로 성장하여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심술궂은 마귀할멈이 장수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마지막으로 바위를 나르는 순간 치마를 찢어 버려 바위가 가던도중 논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삼신할머니가 머리에 무엇인가 바르는 시늉을 한 것이 생각났다. 사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병어리였던 관계로 남에게 묻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들은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하며 논 바닥에 생긴 산을 까막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어린 장수가 죽은 후 용늪에서 나온 말이 이 동네에 와서 한 나절을 슬피 울었다고 하여 그 후부터 이 동네를 馬來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여

백

전 통 놀 이



장 채 놀 이 ■ ■ ■ ■

1. 장채놀이의 意義

장채놀이(擲球)는 오래 전부터 나뭇군이나 농군들 사이에서 전해져오는 지금의 필드하키 비슷한 놀이로 현재는 축구 등 球技가 보급됨에 따라 自然淘汰된 상태에 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공을 쳐서 하는 이 장채놀이는 비교적 남성적인 놀이로 위험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한바탕 뛰고 난 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대개가 坐俗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장치는 흥 위주의 놀이이며 구태어 놀이의 승부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고 체력단련과 부락민의 단합을 위해서 행해지던 놀이로 우리나라의 민속이 대부분 男女混成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이 장채놀이는 남성으로 행해지던 놀이이다.

2. 장채놀이의 方法 및 分布

장채놀이(장치기)의 方法은 넓은 들에서 할 때와 나뭇군들이 산에서 여흥으로 할 때의 두가지로서 하는 방법은 같으나 人員編成이나 小道具 등에서 약간의 差異가 난다. 넓은 들이나 논, 밭에서 할 때는 마을마다 農樂隊와 應援團을 내세워서 대대적인 部落團位의 경기가 됐으며 산에서 나뭇군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할 때는 2~3명이 한편을 이뤄(이것을 현장치기라 한다) 지계의 작대기를 이용해 놀이를 한다.

놀이의 방법은 놀이장소의 양끝에 금을 긋거나 돌을 놓아서 표시를 해놓고 나무로 깎아 만든 공을 쳐서 먼저 자기편으로 끌고 가는 편이 이기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놀이이다. 이 장치는 전국에서 고루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놀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평택지방에서는 「얼네공치기」라고 하여 즐겼으며 경상도 일역에서는 「짚치기」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한 기구를 갖고 행해지는 이 장치는 때로는 나무막대를 휘두르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어 위험도가 따르긴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민속을 발굴하고 再演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민속으로 권장해 볼만한 놀이이다.

3. 驪州의 장채놀이

驪州地方도 전에는 거의 全域에서 장치기가 행하여 졌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까지 演戲되던 곳은 陵西面 新池里 새미실 부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놀이 場所

驪州邑에서 이천 쪽으로 가다가 능서 못미쳐 때루리 쪽으로 꺾어서 태평리쪽으로 가다보면 능서면 신지리에 다다른다. 이 신지리는 北城山이 옆으로 길에 뻗어있어 이곳에 城址가 있으며 큰길에서 깊숙히 들어간 곳에 陰地와 陽地로 나뉘어 백여호가 살고 있으며 이곳이 새미실(생실) 부락이다. 이 부락에서는 해다 中年行事로 이 장치기를 연희했다고 한다.

놀이가 행해지는 날이면 음지와 양지로 나누어 장정들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의 노인들을 모신 가운데 이 놀이를 시작한다.

(2) 놀이 方法

陰地選手는 머리에 파란띠를 두르고 陽地選手는 빨간띠를 표시하며 이때의 빨간띠는 태양의 양지를, 파란띠는 달빛의 음지를 나타낸다.

兩부락에서는 農樂隊를 선두로 응원단이 나와서 각기 자기편을 응원했으며 놀이 장소는 넓은 논이나 밭을 이용해 소나무옹이가 여러겹 뭉친 것을 지름 7~8cm 정도로 둥글게 깎아 공을 만들거나 짚을 꼬아 둥글게 뭉쳐 만든 공을 물푸레나무로 1.5m 정도의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로 공을 쳐내어 勝敗를 가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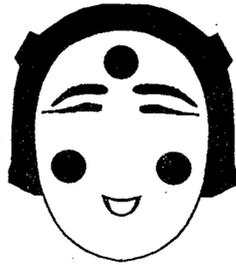
놀이마당의 넓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장소이 형편을 보아서 설정했으며 새끼줄을 쳐서 골문을 정하고 촌장의 신호에 따라서 나무공을 자기편 쪽으로 빼앗아가서 많이 넘기는 쪽이 이기게 된다. 다른 경기가 상대방으로 많이 넣는 편이

이기는 것이고 현재의 球技가 거의 다 그러하지만 이 장치는 특이하다(陵西面 변도5리 거주 유유봉(75세)옹의 증언)

(3) 놀이 時期

장치의 놀이시기는 겨울철의 놀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평택지방) 음력 정월에서 대보름 사이에 행해지던 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의 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대개 음력 정초에 했지만 그때 뿐이 아니고 항상 즐겨왔다는 점이다. 즉 나뭇군들이 나무를 하다가 서로 내기를 해 나무를 한무더기씩 넘겨주기를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즐기려는 뜻에서 이 장치를 즐겨 왔다고 하며 이런 점으로 볼때 이 장치를 春夏秋冬의 구별이 없이 일년을 통해서 즐기는 체력단련을 위한 민속놀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향 토 문 예



「시」

추 석

고향가는 길
고통의 길
도로마다 주차장
대이동의 아우성
그렇지만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고향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추석날 아침엔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햇쌀밥, 햇과일, 송편떡으로
차례도 지내고 성묘를 해야지요
달밝은 저녁엔
전해오는 거북놀이, 씨름도 하면서
밤새는 줄 모른다오.
조상의 은혜 감사하는 효심
외국 사람들 부러워 한다네
우리의 미풍양속
영원히 영원히 이어가리



강 래 회 / 약력

- 「교단문학, 아동문예, 아동문학」동화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한국아동문학회 경기지회장
- 한국아동문학회 작가상 수상
- 여주초등학교 교장 역임
- 저서〈동화집 : 천사의 얼굴 등 6권〉
〈동요집 : 일곱색 무지개〉등 다수

백 야

작은 들꽃하나
하얀 밤을 지키고 있다.
나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빛살로 명멸해 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새들의 노래 소리도
나비들의 군무도 없고
보아주는 이도 없는
싸늘한 형광불빛 아래
사랑스런 야생화
한떨기
지키고 서 있다.

그대는 아마도,
전생애,
하늘의 이 화였을터.

찬란한 여명을 기다리며
불꽃을 지피는
그대!
있음으로.
하얀 밤이 향기롭다.



김 정 인 / 약력

- 「문예사조」시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현재 : 금강유리 근무

아지랑이 바람

바람이 노래를 부른다.
햇살 내리는 봄날에
고향마을 모퉁이에서
아지랑이 바람이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는 밭갈이 위해
잠뱅이 옷 걸치고
머슴은 사랑채에서
밭갈이 쟁기를 챙긴다.

바람은 어느덧 허공을 울리고
멀리멀리 퍼져나간다.
아지랑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멀리 퍼져간다.



박 광 태 / 약력

- 여주출생
- 동국대 국문과졸 동대학원졸
- 축협중앙회 감사 및 사료공장
사업소장 역임
- 「자유문학」시 당선
- 해평시 동인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현재 여주문화원 부원장

고백

- 혼자서는 아름다울 수 없다 -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속 진심을
말도 하지 못하였네

사랑하는 마음
감미로운 언어는
메아리로 돌다가
눈 한번 제대로 못 뜨고

사랑하는 마음
헤어지는 아쉬움
칠흑의 어둠을
돌아보며 손짓하고

사랑하는 마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들만 다정함이
총총이 그려있네.



박 찬 수 / 약력

- 「월간문예시조」 시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 사무국장
- 경기동부신문 객원 논설위원
- 현재 : 여주동중 교사

태백산을 오르며

한해를 보낸다는 것
한해를 맞이한다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이름표를 저마다 가슴에 달고
기차를 탔을까

크고 작은 바람과 용서들이
산꼭대기 강한 바람으로
날려서 싹을 틔우길 혹은
씻기위 지울 수 있기를 기도하며
묵묵히 오른다.

아직 더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내 나이 서른의 새벽처럼

태백의 찬 하늘
신선한 별 향기가 파고든다.



이 만 준 / 약력

- 여중고 졸업
- 금강근무 역임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별꽃 사랑

달빛
그리움으로
가슴 찢는
시냇물

보고 싶어요
별꽃사랑



이 신 재 / 약력

- 안성중 교사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이별

네가
내게
남겨
놓은
별꽃 그리움

나무 한그루

뒷동산 나무 한그루
무더운날 그는
그늘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손짓하였다.

내가 슬플땐 새들을 불러
노래를 불러 주웠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앞애다 물고
노래 부르며
그 넓은 앞으로
바람을 막아 주웠다.

비가 오는 날엔
있을 활짝피
우산을 만들고
비를 피하게 하였다.

낙엽이 우수수 날아갈땐
한없이 응시하면서
그래그래 그덕그덕
눈감고 침묵속
사색속에 사색을 하는 너.

하늘에서 눈보라가
대지를 하얗게 만들던 날

별이 보이는 지붕을
횡횡 거리며
그는 굳굳이 서서
함께 흰눈을 뿌리고 있었다.



이 일 섭 / 약력

- 시와 시론 당선 등단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학과 졸업
-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역임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시집 <내가 부르던 그 이름은 아니었다.>
날아가는 새> 등 다수
- 현대 시인협회 회원 현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협 경기지회

석 별

술한 옷깃의 여운으로
우리가 그랬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주위는 침묵하고 있었다
수많은 삶의 백태 속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과
반기고 싶은 것의 교차점이
지금이라고 알려주는 이 없음이
새삼 원망스럽다

영원하다는 것에 공허하고
아쉽게 스쳐지남을
애써 태연한척 하였다.



임 춘 봉 / 약력

- 순수문학 추천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가을 연가

추억이란 책갈피에
고이접어 간직한 자연

사진첩을 꺼내 보듯
이따금씩 들춰내면

빛 바랜 고운 얼굴이
안개속에 가물댄다.

해마다 가을오면
슬픈연가 불러보지만

소매잡고 울며헤진
그 상흔 아직도 남아

후미진 마음의 한구석
想思花로 피어나네.

호숫가 떠오른 별처럼
반짝이던 내 눈동자

무슨 자석 지녔기에
나를 질질 끌고 다녔는가

세월의 산등성이에
명멸했던 身然이여



원 용 문 / 약력

- 「월간문학」 시조 당선
-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 한국문협 여주지부장
- 효제팬클럽 한국본부이사
- 한국시조학회 회장
- 문학박사
- 시조집 〈그리움의 미학〉 외 다수
- 수필집 〈선택받지 못한 사람〉 외 다수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산 나 물

잡풀속에 뒤섞여 보일 듯 말듯해도
우리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물
맛자랑 할줄몰라도 입맛에는 최고야

은갓나물 다모여 밥상가득 보이지만
쓰디쓴 맛이랴도 정이담긴 나물들
본래의 네 맛깔만은 잊을수가 없구나



정 기 명 / 약력

-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 「문예사조」 시 당선
- 「현대시조」 시종 당선
- 한국문협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경인시조시인협회 회원
- 끼리창작 동인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회장
- 시집 〈여강의 꽃을 달고〉 등 다수
- 현재 : 감천중학교 교사

그 날이 어제 같았는데

붉은 깃발속에서 우라 ... 우라 ...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분간이 어려웠던 화상들
머리는 노랑머리인데 눈만 반짝반짝하더군
또 우라 ...
대형 붉은 깃발이 하늘을 찌른다
우랄산맥 서쪽에서 몰려드는 점령군의 함성이라



양암 조 현 / <약력>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시집 '남한강 초적' 발간
- 한국서예문화예술상
- 북청군의 노래 작사 당선
- 1천만명 이산가족 수기공모 장원
- 세계시인협회 지도위원
- 여주대학 강사
- 한국 문인협회 회원

볼가(Volga)강을 웃으면서 넘어 바이칼호 동쪽까지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다발총의
철없던 소련 병사도 지금은 얼마나 늙었을까?
정말 위협적인 로그케와 카레이스키의 이중주였지

북청평야는 벼, 조, 기장, 수수 고개속이고
황금 들녘에 굵실굵실 파도칠 때
공출의 공포에서 벗어나 절로 배부르던 그날, 8.15
'로스케 호로쇼'를 연발하며 춤추던 카레이스키
'데모크라서' 조국의 앞날을 그려도 보았지
'야쁜스키' 거리에서 사과껍데기 주워먹던 아픔의 날들

'어느 전투에 참가했느냐?' 인사처럼 나누던
서기 1945년 8월 15일의 추억에 잠기노라
미취학 아동의 산수계산처럼 어제같은 착각인데 말이여!
그 55년의 세월은 언제 갔느냐고 소리쳐 묻노라
'전쟁과 평화' '부활'을 손에든 정열의 청년
그처럼 꿈꿨던 문학도의 검은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니
참말로 그 날이 어제 같았는데 ...

캘리포니아에서

광활한 산야
끝없는 도로

보라색 · 흰색 · 노랑색
유채꽃이 무리져 피어 있다.

내가 이들의 언어를 몰라도
내가 이들의 이름을 몰라도

꿈속이었을까?
아니면 억만년 전 기억속 일까?

내가 이승에 태어나기전

한마리 부지런한 곤충으로
후회없이 살면서
익혀둔 풍경같은

어쩌면 한그루 나무로
일생을 기다리며
삶을 포용해온 풍경같은

어디선가 만난듯한
낮설지 않은 풍경들.

바람개비 바람따라 돌듯
세월이 그저 흘러가듯
내가 나를 잊은채
이끝도 없는 대륙을 달리고 있듯

그리움과 흥분과 경이로움이
그렇게 돌고
흘러가고
달리고 있다.



홍 은 숙 / 약력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사랑하며 살아도 ……

이 장 호

아내와의 다툼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아내가 건네준 커피에 크림이 들어있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나는 크림을 안 넣는다.)

아침나절 딸의 등교준비에 바쁜 아내에게 넥타이를 찾아달라는 나의 억지(?)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

옛그제도 그랬다. 분명히 새로 산 와이셔츠를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깜빡 잊은 것이다.

아침부터 가시 돋친 말이 오갔고 아내가 다려주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기어코 벗어둔 와이셔츠를 세탁기에서 꺼내입고 출근한 것이다.

친구의 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하던중에 마누라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녀석이 제 마누라 흉을 보기 시작했다. 녀석도 아침에 한바탕 한 모양이다.

결국 “야 너희도 우리처럼 싸우며 사니?” 녀석은 나를 끌어들이고 싶은 모양이다.

우리부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 대학졸업 후 한 달 반만에 결혼하여 동창들 사이에 유명해진 “첫사랑 커플”이 아닌가? 언젠가 들은 유명인사의 방송멘트를 생각해내고 그대로 들려두었다.

“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싸우냐? 사랑으로 살아야지.”

친구와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왠지 가벼웠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사과의 말과 친구얘기를 들려주고 우리부부는 크게 한참이나 웃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山 寺

고요한 산기슭 깊은 골짜기
장엄하게 들어오는 아담한 山寺
낙낙장송에 화이 앓은 듯이
청초한 그 사찰 松鶴寺
새벽공기를 가르는 여승의 청아한 목탁소리
고요한 산골마을 새벽 잠을 깨운다.

원 종 천

<악려>
· 전 강천면장

여승님이여! 부디 득도하시길!

봄

아지랑이 아롱거리는 봄날
하늘 높이 날아 종알종알 종달새 소리
앞논에 퐁퐁 퐁퐁 퐁퐁새 소리
앞 뒷산 피플 피플 피플새 소리
모두 어디로 갔나?
그 소리

듣고 싶구나!

〔수필〕

생명 연습



이 상 국 / 약력

- 제2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필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현재 : 여주군청 근무

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우리 집엔 화단도 없다. 꽃 사랑을 하면 “잡아먹을 개나 기르지” 하고 돌아서던 내가 꽃에 관한 수필을 읽고, 히아신스가 궁금해,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침 꽃장사가 와 구근 3개를 사서 물컵에 담가, 아랫목에 정성스럽게 모셔 놓았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싹을 틔우지 않는다. 겨우 한개가 파란 송곳처럼 솟아오른다.

궁금해 화원에 물어보니 “일었을 것”이라며 자기 것을 길러 보라고 3개를 주었다. 돌아와 자라지 않는 구근을 잘라보니 한창 썩는 중이다.

인간이라니. 돈 벌자고 차에 싣고 다니다 열리고, 버리기가 아까워 썩어 가는 구근을 헐값에 파는 양 생색을 내며 팔았구나. 새 구근과 헌 구근 중 싹을 내미는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다.

꽃대가 솟아오르는 구근들은 2,3일에 물을 갈아주어야 하건만 예의 구근은 항상 남아돈다. 자세히 보니 뿌리가 한 개뿐이다. 수 십 개의 뿌리를 몽땅 얼렸던가 캐는 도중에 잘린 모양이다. 한 개의 뿌리로 생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새 구근들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올라 꽃대를 피워 올리고, 줄기는 꽃 덩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질 듯 허리를 굽히고 꽃을 피운다. 아내가 안쓰러워 받침 목을 해주었다.

퇴근 해 방에 들어서면 히아신스 향내가 진동한다. 그래서 그는 수필을 썼고, 나는 히아신스를 찾았으며, 아내는 남편 덕에 꽃을 본다고 했구나.

꽃이 지고, 탕탕하던 구근은 쭈글쭈글해 졌으며, 잎사귀마저 후줄근해졌건만, 남아있던 구근은 골난 놈 모양 엄지손가락 만한 순을 빼어 물고 꿈쩍도 않는다. “버릴까.” 아내에게 물으니, “아직 두고봐요.” 생명이 아깝고, 꽃이 진 뒤라, 이 것에 기대라도 걸고 싶은 눈치다.

가운데 손가락 만큼 솟아, 줄기를 벌려보니 꽃대는 까맣게 죽었다. 죽은 아기를 안고, 우는 어미를 보는 것만 같다.

피에타-미켈란젤로의 명작으로,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성모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슬픔에 젖은 대리석이다.

강물에 익사한 아들을 안고 올라오는 여인을 보고 이 명작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으며 이명작처럼 30여 년 전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여인은 6.25 미망인으로 피난살이중,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 아들을 안고 통곡하는 젊은 미망인.

한 달이 지났건만 마지막 히아신스를 버리지 못한다.

[창작동화]

배추김치의 꿈

강 태 희

“엄마! 접시에 빨간 반찬은 무엇인가요?”

아들은 처음 보는 반찬이라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 반찬 코리아에서 온 배추김치야. 어떤지 맛좀 볼래?”

어머니는 서슴치 않고 맛부터 물었습니다.

“엄마! 맛을 보니 좀 매콤하고 시큼한 것이 입안이 시원해요.”

아들은 배추김치 맛을 멋지게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저도 먹어보니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입안이 향긋해요.”

막내 딸은 한술 더 찻습니다.

“그래, 이때까지 못먹어봤던 반찬일거야. 그렇게 맛 좋으면 매일 사다먹자꾸나!”

어머니도 맛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먹어봐도 별민데요. 고기하고 같이 배추김치를 먹으니 느끼한 맛이 싹 가시고 정말 깨운하군요.”

아버지도 한말씀 부추겼습니다.

이때 배추김치는 프랑스 나라에 와서 식구마다 모두 좋아하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입이 까다로운 유행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이 이처럼 좋아하니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추김치의 원산지 한국에서는 별반찬이 아니고 으레 식탁에 놓는 반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추김치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야 참맛을 알아내 주니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빠, 아이들 모두 배추김치를 좋아하면 매일 사다먹자구요. 어쩐지 요즘 슈

퍼에서 배추김치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더군요.”

식구들이 좋아한다면 어머니도 배추김치를 매일 사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배추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 하셨나요?”

아들은 잊은듯 다시 물었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동쪽에 있는 코리아에서 온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재차 동쪽을 가르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럼, 동쪽의 코리아는 어떻게 생긴 나라인가요?”

이번엔 막내 딸이 또 물었습니다.

“코리아는 동쪽에 꼭 토끼처럼 생긴 반도 나라인데 팔팔 세계 올림픽을 치룬 아주 역사가 오랜 유명한 나라란다.”

어머니는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의 나라답게 배추김치도 코리아의 전통식품이군요.”

아버지도 멋진 한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배추김치가 맛은 좋지만 영양분이 무엇이 들었나 알고 싶어요?”

아들은 알고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구나! 배추김치에는 여러가지 영양분이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마늘이 재료이기 때문에 항암식품 이라는 것란다. 알겠니?”

어머니는 서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암 예방에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그럼, 또 다른 영양분은 없나요?”

이번엔 번갈아 딸이 물었습니다.

“배추김치에는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 매일 아침 배달해 먹는 요구르트를 먹지 않아도 된단다.”

어머니는 배추김치를 매일 먹는다면 요구르트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 배추김치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소?”

아버지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월 보는 월간지에 코리아의 배추김치에 대하여 쓴 것을 보았지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데까지 더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아버지도 호기심이 생기셨습니다.

“배추김치는 섬유질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변비 예방으로 꼭 필수식품이지요. 이래도 또 알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필수식품이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배추김치에는 또 다른 영양분은 없나요?”

아들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또 있고 말고요. 배추김치가 빨갛지요. 바로 고추가루를 넣은 것인데 이 고추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비타민이 얼마나 좋은가요. 안 그래요?”

어머니는 배추김치 박사처럼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때 배추김치는 더욱 신바람이 났습니다.

유행의 나라 프랑스 가정에서 이처럼 배추김치를 좋아하니 전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 아니 세계 각국으로 점차 퍼져나갈 생각을 하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 난 매일 배추김치 먹을 수 있나요?”

막내 딸은 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슈퍼나 식품코너에 얼마든지 있으니 좋아만 하면 매일 사올 수 있지요.”

어머니는 시원스레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나도 매일 배추김치 먹을래요?”

아들도 덩달아 말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배추김치는 고기 먹은 후에는 꼭 먹는 것이 입안이 깨운할뿐 아니라 모든 영양분이 풍부하니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모른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대찬성이었습니다.

“당신! 나도 배추김치 맛이 좋은데요. 고기 먹고 배추김치 안먹으면 입안이 텁텁해요. 매일 식탁에 있으면 나도 좋겠어요.”

아버지도 아들과 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배추김치는 온식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천여년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식품인 배추김치인데 이제야 때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배추김치는 지난 날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산에서 배추김치가 배에 실릴때 서로 다짐 하였던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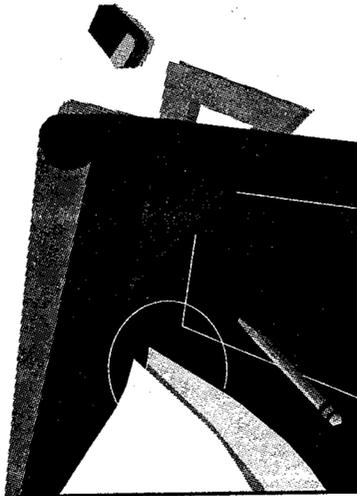
“매콤하고 시큼한 맛!”

“시원하고 깨운한 맛!”

이 두가지 맛은 한국의 전통식품으로서 어느 나라에 가던지 누구에게나 사랑받자는 것입니다.

배추김치는 오늘도 온세계로 뻗어나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32회 세종문화큰잔치
백일장 및 그리기대회



제32회 세종문화큰잔치 백일장 대회
및 여주군 그리기 대회 수상자 명단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경기도지사상 (대 상) | 김 성 경 | 여흥초등학교 | 6 | 산문 |
| | 김 보 경 | 광명북고등학교 | 2 | 시 |

■ 시 부문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경기도의회의장상 (금 상) | 박 별 |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3 | |
| | 최 가 람 | 여주중학교 | 2 | |
| | 박 기 선 | 여주고등학교 | 1 | |
| 여주군수상 (은 상) | 유 소 정 | 송삼초등학교 | 6 | |
| | 고 지 훈 | 강천초등학교 | 1 | |
| | 김 영 경 | 천남초등학교 | 6 | |
| | 이 승 분 | 여주여자중학교 | 2 | |
| | 이 가 람 | 여주여자중학교 | 3 | |
| | 한 봉 희 | 점동종합고등학교 | 2 | |
| | 이 아 람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여주교육장상 (동 상) | 이 기 뽀 | 상품초등학교 | 2 | |
| | 안 새 림 | 점동초등학교 | 5 | |
| | 이 기 뽀 | 북내초등학교 | 5 | |
| | 황 현 숙 | 여흥초등학교 | 6 | |
| | 전 나 래 | 여흥초등학교 | 6 | |
| | 손 준 배 | 여주초등학교 | 2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여주교육장상 (동 상) | 김 미 애 | 이포중학교 | 2 | |
| | 신 선 혜 | 여주동중학교 | 2 | |
| | 김 보 란 | 여강중학교 | 2 | |
| | 이 은 주 | 여강중학교 | 3 | |
| 여주군의회의장상 (동 상) | 김 재 환 | 남한고등학교 | 1 | |
| | 임 아 영 | 창명여자종합고등학교 | 2 | |
| | 정 화 식 | 용문종합고등학교 | 2 | |
| | 김 하 나 | 광명북고등학교 | 2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장 려 상) | 임 창 희 | 연라초등학교 | 3 | |
| | 송 은 혜 | 상품초등학교 | 5 | |
| | 김 동 산 | 강천초등학교 | 1 | |
| | 이 의 정 |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6 | |
| | 김 하 람 | 부천동곡초등학교 | 2 | |
| | 이 정 인 |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3 | |
| | 한 아 름 | 북내초등학교 | 6 | |
| | 신 슬 기 | 북내초등학교 | 6 | |
| | 진 경 진 | 홍천초등학교 | 6 | |
| | 장 미 | 여주초등학교 | 4 | |
| | 문 주 연 | 이포중학교 | 3 | |
| | 김 형 진 | 세정중학교 | 2 | |
| | 신 지 덕 | 대신중학교 | 3 | |
| | 전 상 필 | 이천중학교 | 2 | |
| | 이 민 정 | 점동중학교 | 3 | |
| 조 경 민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상 (장 려 상) | 최 형 우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 정 지 영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 조 우 희 | 이천고등학교 | 2 | |
| | 최 은 영 | 광명북고등학교 | 2 | |
| 여주문화원장상 (장 려 상) | 이 지 우 | 가남초등학교 | 1 | |
| | 김 현 주 | 여흥초등학교 | 3 | |
| | 김 지 윤 | 여흥초등학교 | 5 | |
| | 이 흘 기 | 연라초등학교 | 4 | |
| | 경 혜 원 | 여주초등학교 | 5 | |
| | 임 가 은 | 가남초등학교 | 1 | |
| | 최 경 숙 | 북내초등학교 | 5 | |
| | 박 현 우 | 상품초등학교 | 1 | |
| | 김 민 지 | 금당초등학교 | 2 | |
| | 장 별 이 | 연라초등학교 | 2 | |
| | 이 하 나 | 이포중학교 | 1 | |
| | 김 선 주 | 이포중학교 | 3 | |
| | 이 계 성 | 대신중학교 | 3 | |
| | 강 동 분 | 세정중학교 | 3 | |
| | 장 인 혜 | 여주동중학교 | 1 | |
| | 김 지 은 | 광명북고등학교 | 2 | |
| | 정 종 구 | 광명북고등학교 | 2 | |
| | 박 세 연 | 여주고등학교 | 2 | |
| | 한 아 름 | 창명여자고등학교 | 1 | |
| | 김 성 현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산문 부분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경기도의회의장상 (금 상) | 심 송 희 | 여주초등학교 | 5 | |
| | 이 승 광 | 여주동중학교 | 3 | |
| | 이 소 정 | 점동종합고등학교 | 1 | |
| 여주군수상 (은 상) | 신 서 연 | 대신초등학교 | 2 | |
| | 최 수 경 | 북내초등학교 | 6 | |
| | 이 수 정 | 천남초등학교 | 3 | |
| | 강 기 연 | 여주여자중학교 | 2 | |
| | 조 영 웅 | 여주중학교 | 1 | |
| | 이 지 혜 | 상품중학교 | 3 | |
| | 김 수 진 | 광명북고등학교 | 2 | |
| | 이 은 혜 | 여주고등학교 | 2 | |
| | 최 화 란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2 | |
| 여주교육장상 (동 상) | 박 우 희 | 오학초등학교 | 2 | |
| | 주 진 영 | 의정부중앙초등학교 | 6 | |
| | 강 지 현 | 오학초등학교 | 1 | |
| | 김 재 현 | 오학초등학교 | 2 | |
| | 황 수 민 | 여흥초등학교 | 6 | |
| | 곽 민 주 | 북내초등학교 | 3 | |
| | 곽 은 경 | 강천중학교 | 2 | |
| | 한 송 이 | 점동중학교 | 3 | |
| | 신 일 영 | 점동중학교 | 1 | |
| | 윤 다 혜 | 여주여자중학교 | 3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여주군의회의장상 (동 상) | 임 진 숙 | 장호원상업고등학교 | 2 | |
| | 허 정 은 | 남한고등학교 | 2 | |
| | 박 영 | 안양고등학교 | 2 | |
| | 박 혜 정 | 창명여자고등학교 | 2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장 려 상) | 임 서 희 | 여흥초등학교 | 6 | |
| | 이 보 란 | 점봉초등학교 | 6 | |
| | 구 예 랑 | 천남초등학교 | 5 | |
| | 박 상 은 | 흥천초등학교 | 6 | |
| | 이 세 희 | 점봉초등학교 | 6 | |
| | 이 신 미 | 가남초등학교 | 6 | |
| | 최 지 예 | 점동초등학교 | 1 | |
| | 백 미 나 | 여주초등학교 | 3 | |
| | 이 유 진 | 능서초등학교 | 6 | |
| | 정 효 진 | 능북초등학교 | 4 | |
| | 곽 혜 경 | 강천중학교 | 3 | |
| | 이 혜 진 | 이포중학교 | 2 | |
| | 주 하 나 | 여강중학교 | 3 | |
| | 이 병 숙 | 창명여자중학교 | 2 | |
| | 이 초 룡 | 상품중학교 | 3 | |
| | 이 혜 선 | 여주고등학교 | 2 | |
| | 김 경 아 | 여주고등학교 | 2 | |
| | 조 근 호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이 기 찬 | 광명북고등학교 | 1 | | |
| 배 삼 희 | 이천양정고등학교 | 2 |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여주문화원장상 (장 려 상) | 이 지 연 | 강천초등학교 | 6 | |
| | 박 혜 영 | 홍천초등학교 | 4 | |
| | 박 상 진 | 북내초등학교 | 1 | |
| | 황 지 혜 | 능북초등학교 | 6 | |
| | 이 예 원 | 송삼초등학교 | 5 | |
| | 김 혜 빈 | 점봉초등학교 | 1 | |
| | 조 은 샘 | 북내초등학교 | 4 | |
| | 박 보 미 | 천남초등학교 | 6 | |
| | 강 명 현 | 오학초등학교 | 3 | |
| | 박 효 정 | 홍천초등학교 | 5 | |
| | 차 윤 미 | 여주동중학교 | 1 | |
| | 이 소 현 | 여주여자중학교 | 1 | |
| | 윤 이 나 | 여주동중학교 | 2 | |
| | 오 다 영 | 점동중학교 | 2 | |
| | 윤 정 은 | 강천중학교 | 1 | |
| | 이 대 현 | 이천고등학교 | 2 | |
| | 강 민 아 | 용문종합고등학교 | 2 | |
| | 김 보 라 | 남한강고등학교 | 2 | |
| | 추 세 은 | 남한고등학교 | 2 | |
| | 홍 현 정 | 화성송산종합고등학교 |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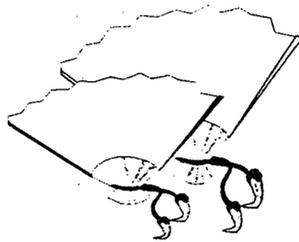
■ 그리기 부분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여주군수상 (대 상) | 한 힘 찬 | 여주초등학교 | 6 | |
| | 정 대 현 | 여주중학교 | 3 | |
| | 탁 송 이 | 여주고등학교 | 1 | |
| 여주교육장상 (금 상) | 조 형 준 | 점동초등학교 | 4 | |
| | 이 상 일 | 상품초등학교 | 3 | |
| | 정 지 인 | 오학초등학교 | 3 | |
| | 문 주 원 | 여주여자중학교 | 3 | |
| | 김 민 영 | 여주여자중학교 | 3 | |
| | 이 강 훈 | 여주중학교 | 3 | |
| 여주군의회의장상 (금 상) | 안 형 희 | 창명여자종합고등학교 | 3 | |
| | 배 지 혜 | 여주고등학교 | 2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상 (은 상) | 김 혜 정 | 점봉초등학교 | 6 | |
| | 조 솔 이 | 북내초등학교 | 6 | |
| | 이 민 지 | 대신초등학교 | 4 | |
| | 송 혜 정 | 여흥초등학교 | 6 | |
| | 최 유 성 | 능서초등학교 | 3 | |
| | 황 진 경 | 능북초등학교 | 3 | |
| | 이 예 슬 | 매류초등학교 | 2 | |
| | 최 원 태 | 점동초등학교 | 2 | |
| | 최 꽃 님 | 여주여자중학교 | 1 | |
| | 김 미 라 | 여주동중학교 | 3 | |
| | 김 준 숙 | 여강중학교 | 3 | |
| | 변 예 슬 | 여주여자중학교 | 1 | |
| | 민 하 립 | 여강중학교 | 3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상 (은 상) | 서 윤 경 | 창명여자고등학교 | 1 | |
| | 조 경 희 | 창명여자고등학교 | 2 | |
| 여주문화원장상 (동 상) | 김 해 도 | 점봉초등학교 | 5 | |
| | 이 수 훈 | 점봉초등학교 | 4 | |
| | 방 예 현 | 대신초등학교 | 6 | |
| | 이 재 희 | 오학초등학교 | 6 | |
| | 백 효 진 | 능서초등학교 | 4 | |
| | 김 경 미 | 여주초등학교 | 6 | |
| | 권 혁 재 | 여흥초등학교 | 5 | |
| | 김 기 영 | 가남초등학교 | 6 | |
| | 박 유 리 | 여흥초등학교 | 6 | |
| | 손 정 미 | 여주초등학교 | 4 | |
| | 유 현 우 | 여주초등학교 | 5 | |
| | 김 지 선 | 점동초등학교 | 4 | |
| | 조 덕 현 | 여주초등학교 | 4 | |
| | 김 지 혜 | 여흥초등학교 | 6 | |
| | 윤 지 영 | 대신초등학교 | 1 | |
| | 최 소 담 | 점봉초등학교 | 1 | |
| | 박 상 영 | 여주초등학교 | 3 | |
| | 최 종 권 | 여흥초등학교 | 1 | |
| | 정 세 미 | 대신초등학교 | 1 | |
| | 임 승 원 | 오학초등학교 | 2 | |
| 이 한 동 | 점동초등학교 | 3 | | |
| 제 유 경 | 강천초등학교 | 1 | | |

| 구 분 | 이 름 | 학 교 | 학 년 | 비 고 |
|------------------|----------|---------|-----|-----|
| 여주문화원장상 (동 상) | 곽 혜 선 | 강천초등학교 | 1 | |
| | 홍 정 민 | 오학초등학교 | 3 | |
| | 윤 상 필 | 점봉초등학교 | 3 | |
| | 오 지 희 | 여주동중학교 | 2 | |
| | 이 연 주 | 여주동중학교 | 1 | |
| | 권 미 량 | 창명여자중학교 | 3 | |
| | 신 현 숙 | 세정중학교 | 3 | |
| | 양 주 희 | 여주동중학교 | 2 | |
| | 사 애 정 | 세정중학교 | 2 | |
| | 최 윤 이 | 상품중학교 | 3 | |
| | 강 수 진 | 여주여자중학교 | 3 | |
| | 윤 태 열 | 여주중학교 | 2 | |
| | 이 은 경 | 여주여자중학교 | 2 | |
| | 김 민 희 | 여강중학교 | 2 | |
| | 원 건 희 | 여주중학교 | 1 | |
| | 방 효 숙 | 상품중학교 | 3 | |
| | 박 은 실 | 이포중학교 | 2 | |
| | 홍 지 원 | 대신중학교 | 2 | |
| | 김 승 태 | 대신중학교 | 3 | |
| | 박 은 비 | 상품중학교 | 1 | |
| | 윤 영 준 | 여주중학교 | 2 | |
| 오 다 현 | 창명여자고등학교 | 1 | | |
| 강 현 정 | 창명여자고등학교 | 2 | | |

학생 입선 작품



《대상》

그림 놀이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김보경

하늘을 닮은 ○
땅의 형상 —
사람을 본 판 |
자연에서 하나씩
섬섬치 않게 하나씩
우주와 인간의 시작점을 모아
그림을 그린다

저 광활한 하늘과
끝없이 이어진 지평선
그 지평선 위에 선 우리

하나된 재료는
제각기 다르지만,
자신의 곳을 찾아간다

두 개의 ○ 아래
죽 그어진 |
그 밑에 자리한 —

○ ○
|
—

《금상》

여주 가는 길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3학년 박 별

가는 길은 멀기도 하네
시원한 강바람과
산새 소리가 울려 퍼지네

가는길 만큼
역사속에서 흘러온 위대한
세종대왕님이 드디어
한글을 만드셨네

대숲을 스치는 맑은 바람에
남기신 기상이 드높네

가는길 만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심정은 더 깊숙히 들어가고 있네

우리의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있는곳 바로 여주
여주로 가자, 여주로 …….

《금상》

등 대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내게도
찾아와 주었죠
쓰고프던 우리만의
글을 쓰며 나의
오늘은 흘러가고 있네요

여 주 중 학 교

2학년 최 가 람

이런 날이 오기 전에는
난
흘러간 나날속에
어둠 해매는
소금기 가득한
등대였었죠

하지만
이제 어둠은 걷히고
한글이 우릴
밝혀주었죠

이제는
긴 장대 높이
우리 민족의 한을
걸어 놓을래요

앞으로 계속써야 할
그리고
계속 사랑해야 할
한글로 ……

《금상》

꽃 망 울

여주고등학교

1학년 박기선

큰 하늘 한글
자모(字母)의 빗물되어
세상에 새 생명 잉태시키고
그 영광으로
해동의 꽃은
아련히 그 열림을 보이랴

새 시대 속 열림을 감춘 한글
한반도 뿌리 내려
민족 숨결 간직하고
다가오는 목 놓임 위해
타는 목 들어 너를 기다린다

지내온 땅의 정기 받아
강물 속 작은 한글의 기척
큰 나라에 울었던 네 어미
이제 한 나비되어
파란 하늘 날아오르려는가

숨 다한 작은 낙엽 속
한글의 꽃 만발하는 향기
오늘 가난한 목 놓임으로
민족 아버이를 생각하리라.

유난히 빛나는 별, 한글

여흥초등학교

6학년 김성경

우리 일상생활 깊숙히 접어든 외래어는 우리의 소중한 글을 우리 기억속에서 사라지게 하고있다.

얼마전,

국어시간에 북한에 대하여 공부했던 적이 있었다. 그사람들은 외래어를 토박이말로 바꿔서 실생활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콜드크림을 기름크림이라고 하고 연고를 무른고약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적혀있는 국어책을 보며 웃었던 우리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욱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증거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활에 우리생활을 비교하면 반대되는 생활인것 같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생활이 안타깝다.

우리가 영어, 일어와 같은 외국어를 일상에서 배우고 쓰는것처럼 다른나라에서도 우리의 한글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한글은 과학성이 아주 우수한 글이란 말을 들었다. 이런 우리의 한글을 외국어를 아는 것 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개성으로 만들어진 한글 ...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 지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계각국 사람들이 우리의 한글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감탄을 금치 못할때, 그때 ... 우리는 비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얼마전, TV뉴스에서 이런기사가 나왔다. '10대만의 언어.'라고 ... 채팅과 같은 것을 할때 인사하는 말도 제 각각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있다. 그리고 희미해져만 간다.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중에 유난히 빛나는 별 같이 ... 우리의 한글도 그 많은 나랏말중에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우리는 희망 가득한 별로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여주초등학교

5학년 심송희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남북이 시드니에 출전한 것을 보고 남과 북이 가까워졌다는걸 느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봐도 알수 있다. 그래서인지 북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대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 다름아닌 남과 북의 글이 차이였다. 같은 말과 글을 쓰고 사용하면서도 웬지 모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 처음엔 북한말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보니 순수한 우리글이 담겨있었다. 북한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한글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북의 말을 들으며 항상 웃었다. 그러나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었다. 부끄러워 할 일이었다. 북한은 외래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순수한 우리글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외래어를 쉽게 받아들여서 순수한 우리말이 오염되어 간다는걸 알았을때 이상하게만 느껴지던 북한말이 정겹게 다가왔다. 갑자기 순수한 우리글에 고민을 하던 북한의 노력이 가슴깊이 들어왔다. 어찌보면 북한의 한글사용이 우리보다 한수위일 거라 생각하니 우리의 오염된 한글사용이 가슴아팠다.

정치적인 교류로 50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잃어가고 있었고 북한은 그 한글을 소중히 보존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우리의 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대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외국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글을 개발하며 한글을 발전한 북한의 한글발전과 우리의 한글오염을 생각하면서 나도 많은 책임을 느꼈다. 우리상표보다는 외국상표가 멋있었고 외래어를 사용하며 내가 마치 유식하게 뽐냈던 나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머지않아 순수한 한글을 지키고 있는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순수한 우리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북한을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오염된 한글을 지켜나가야겠다. 외래어를 바꾸어 쓰면서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한글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세계화란 이름아래 남의 나라 말만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것이다. 전세계에는 자기나라 말이 없어 남의 나라글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글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글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맥주의 맥걸리

여주동중학교

3학년 이 승 광

세계 각 나라마다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경계하에 얼굴색과 생김새가 서로 다른 인종이 살고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언어에는 성대에서 끌어내는 음성언어와 이 음성언어를 하얀 백지위에 봉인시키는 문자언어, 즉 글이 있다.

긴 시간동안 한반도에서 뿌리내려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는 세종이 창제한 한글이라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있다. 그러나 우리 손끝과 눈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한글이 21세기 국제화라는 흐름에 그 자리를 상실해 가고 있다. 꺼져벌릴 것만 같았던 역사속에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생성시키고, 동시에 위로이자 약속이 되었던 한글이 외국어의 중요성에 밀려 부수적인 존재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견고 있는 현실이 진정 국제화시대에 대한 대처인가? 아니면 제2의 민족말살정책인가? 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요즘 길거리에는 수많은 상호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말 보다는 외래어가 우리의 시야를 매꾸는 현실이다. 너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 아쉬움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추세는 그 농도를 더해만 가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들 상명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뤄지려는 경향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개를 돌려 도시나 그밖의 도외지의 교육현실을 보자. 이 역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된 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국어보다 영어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이에 적용 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시켰던 압력이 사뭇 강했던 만큼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과도한 후유증의 퇴적으로 이를 내뱉는 거부감

또한 클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시대의 속도감에 맞춰 나가려는 교육의 흐름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래어에 너무 흡수되어 가고, 민족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듯한 시대흐름에 아쉬움이 남는다.

오랫동안 같이 숨쉬어 왔다. 항상 우리의 펜 끝에서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던 한글이 복잡한 미로에 얽혀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해매인채 점차 그 위치를 낮추어 가고 있다.

이대로 출구없는 미로에 이런 현실을 방치해 두고, 서서히 종이 위에서 한글을 삭제해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한글은 각 연구를 통해 인류의 문자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이고, 훌륭한 언어로 인정받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어 손색이 없는 그 가치가 인정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기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국의 언어에 우월주의를 느껴 그 향로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지구촌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입모양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 나라가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입지하기 위해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새겨 각 대륙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문화중심주의에 물들어 국제적 도태된 사회를 맞을 수 있는 균형 잃은 시각을 비추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물에 탄 향이 너무 짙으면 독이 될 수 있듯 균형잡힌 조화를 성립하고, 우리 한글을 점진적으로 발전·계승시키며 다른 나라로 부터 인정받고, 동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글의 장미빛 미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 세상 이곳 저곳의 종이 표면마다 한글이 스며드는 날을 기대해 본다.

《금상》

아름다운 불꽃, 키워보지 않으려가.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이 소 정

영롱의 품에 안겨 하늘을 바라본다. 맑고 깨끗한 푸름 속으로 흥겨운 노랫가락이 젖어드는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의 정다운 대화들이 개구쟁이 마냥 이곳저곳을 날아들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다. 하지만 시선을 들어 오늘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한글은 늘 나의 곁에 있었기에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좀 변화를 가져야 할 때이다. 누군가 나에게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난 한참을 망설이겠지.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열일곱이란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 마음이 안타깝다. 해마다 지나온 한글날. 단 한번이라도 내가 진정 이 날을 기려본 적이 있었던가. 부끄러움이 샘솟지만 나를 탓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이런 성찰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테니까. 어젯밤, 촛불 하나를 켜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난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괴로웠다. 하늘을 보니 무심한 별빛만 반짝일 뿐이었다. 문득 촛불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는 작아져 갔지만 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부셨다. 아! 타오르는 불꽃속에서 한글을 보았다. '나를 그렇게 먼 마음으로 느끼지 말아라.' 늘 곁에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며 살며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글을.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라구!" 어렸을적 내가 처음 글을 읽었을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던 아빠의 미소 속에 한글이 있었지. 그것뿐만 이던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아쓰기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만들던 미운 한글도 있었지. 그때 그렇게 어려운 한글을 왜 어른들은 우수하고 창조적인 글이라 예찬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지. 생각해 보니 한글에 담긴 추억이 의외로 많구나.

하지만 매일 똑같은 말만 들어왔기에 한글의 매력을 알지 못했다. 얼마전 10월호 과학

동아를 읽고 한글에 대해 신선한 매력을 느꼈다. 컴퓨터의 음성인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어떤 언어를 쓸지에 관해 얘기한 것이었다. 관건은 우리의 말, 한글이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영어로 'apple' 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이것을 '애플' 이라고 인식할지 '에이플' 이라고 인식할지 고민을 해서 검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글은 '사과'하면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알맞다는 내용이었다. 몇번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었다. 우리의 한글은 발음이 딱 한개씩이다. '아'는 [아]라 읽고 '행복'은 [행복]이라고 읽는다. 그러나 영어의 'A'를 보라 [ʌ]라고 읽기도 하고 [ɪ]라고 읽을때도 있어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바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새롭게 한글의 멋진 한 면을 보았다.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말이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한글을 편찬하신 세종대왕 앞에 후손으로서 설수 있는 당당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글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의무라고 생각지 말라. 먼곳의 한글만 보게 될 뿐이다. '권리'라는 말은 적극성을 띤다.

한글은 그동안 우리민족이 살아오는데 있어 밑받침이 되어 주었다. 모닥불을 피워보았는가? 그 환한 불꽃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나무, 그게 우리의 한글이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왔던 한글. 이제는 우리가 해야할 차례이다. 우리의 마음, 한 민족의 기운을 모아 '한글'이라는 불꽃을 키워야 할 차례이다. 그 찬란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커다란 재목이 되어야 할 차례이다. 이 아름다운 불꽃 키우기를 함께 하지 않으려가?

여

백

여주문학

제 8 호

- 인쇄 2000년 12월 31일
- 발행 2000년 12월 31일

- 발행인 : 한 만 규
- 발행처 : 여주문화원
(031) 883-3450

*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